

Deo Volente

하나님이 원하시면

## 서 문

본서는 제가 최근 몇년간 기회있을 때마다 발표했던 에세이들을 모은 것입니다. 네덜란드(1989-1998), 독일(1999-2006) 그리고 벨기에(2006-현재)에 머물면서 학업과 사역 그리고 기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체득한 기독교 세계관/철학적 통찰들을 나름대로 엮어 보았습니다.

네덜란드 편에서는 먼저 ‘작지만 큰’ 이 나라의 특징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독일 편에서는 특별히 제가 사역했던 퀼른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인이 하나되는 비전에 관해 발표한 글들입니다.

벨기에 편에서는 무엇보다 유럽 연합의 중심지로서 브뤼셀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역들과 통찰들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다 글로벌한 관점에서 올림픽, 아프리카, 장애인, 사역으로서의 비즈니스(Business as Mission), 가정 그리고 환경에 관한 주제도 포함하였으며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저의 사역인 ‘하나 글로벌 사역원(Institute for Integration)’에 대한 비전 및 안내도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들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돌립니다.

Wezembeek-Oppem에서

저자

## 목 차

### 제 1 부: 작지만 큰 나라 네덜란드

Deo Volente (하나님이 원하시면) .....	6
말뚝 위에 세운 나라.....	8
풍차 신앙.....	10
네덜란드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 트리플 포트 시스템(Triple Port System) .....	12
배들의 지옥이 비행기들의 낙원으로: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이 주는 교훈 .....	15
내 인생 최대 위기 탈출기 .....	17
네덜란드의 개혁 철학협회 소개 .....	18
종말론적 긴장감 .....	21

### 제 2 부: 하나님의 비전을 체험한 독일

지하교회 237 년의 역사 .....	25
한국 교회를 사랑으로 섬긴 한 독일 목사님 .....	27
Pastoralkolleg(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와서 .....	29
Eins (하나) .....	33
미주뉴스엔조이 인터뷰 기사 .....	36
ACMK Speech.....	40
한일 연합 예배를 마치고 .....	43
독일 라인란드 개신교회 총회를 다녀와서 .....	45

### 제 3 부: 유럽 연합의 중심 벨기에

브뤼셀 유럽 연합 국회 의사당이 주는 교훈 .....	48
유럽 한인교회 협의회 (가칭) 창설을 제안합니다. ....	50
유럽으로 오는 탈북 동포들 .....	52
피묻은 성경 (The Bible in blood) .....	54
피묻은 신앙고백.....	56
다중 언어 사회의 장단점 .....	58

위털루 전쟁의 교훈 .....	61
FTA 와 BESPA .....	63
Consensus Builder (공감을 이끌어 내는 사람) .....	65
유럽의 화해자 Robert Schuman.....	68

#### 제 4 부: 글로벌 퍼스펙티브

만민이 기도하는 집 .....	70
열두 교차로 .....	72
폴란드의 비극과 소망.....	74
올림픽 우상 .....	76
T.I.U.와 T.I.G. .....	78
유럽의 이슬람: 도전과 대응.....	80
남북한의 하나됨을 위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기도 .....	82
한인교회는 네모난 원(?) .....	85
장애인 봉사견(奉事犬) .....	87
피조계의 청지기 (Steward of creation) .....	90
아이슬란드 화산재가 주는 교훈.....	92
Gottes Schöpfung bewahren .....	94
하나 글로벌 사역원 (Institute for Integration) .....	98

## 제 1 부: 작지만 큰 나라 네덜란드

## D. V. (Deo Volente.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난 2008년 말 가장 심각한 국제적 이슈는 금융 위기였습니다.<sup>1</sup> 당시 미국 굴지의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하고 메릴 린치(Merrill Lynch)가 미국 은행(Bank of America)에 극적으로 구제 합병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인 AIG는 미국의 연방준비기금(Federal Reserve)으로부터 850 억불이라는 거금으로 구제를 받았으며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각종 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제 금융권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미국 의회가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7천억달러의 구제 금융안을 통과시키면서까지 위기 진화에 나섰지만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최근 신용 위기 확산 공포로 4년만에 10,000 선이 무너져 심리적 충격을 더하고 있고 자금 시장의 금리도 급등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 위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금융 시장의 위기가 실물 경제로 옮겨가 전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자칫 이것이 세계적인 재앙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의 금융 시장도 타격을 받아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습니다.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최초로 2008년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이 급락하고 증시가 폭락하자 부실 은행들에 대한 예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은행의 자금 보증을 선언했으며 EU 정상들이 최근 빠리에 모여 대책을 협의하였는데 이것은 그만큼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도 이와 못지 않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IMF를 방불케 하듯 치솟는 환율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이라는 당근과 더불어 각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양면 정책으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중일 3국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렇듯 전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상태로 변했던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것이 명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먼저 이제 전세계는 하나로 통합되어진 경제 시스템임을 알게 됩니다. 종말이 될수록 이러한 통합 과정은 가속화되어 한 지역의 금융 위기는 전체의 위기로 도미노 현상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성장 및 진보 논리는 무한히 지속될 수 없을 것이며 한순간에 파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적 문화를 구축한 거대한 도시 바벨론은 한동안 가장 화려한 모습을 자랑했으나 결국 ‘한 순간 (in one hour)’에 잿더미로 변하고 맙니다. (계 18:10, 17, 19)

---

<sup>1</sup> 본고는 2008년 10월, 전세계에 금융 위기가 몰아쳤을 때 발표했던 에세이를 다시 다듬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이 세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순식간에 무너지듯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재물이 얼마나 헛된 물거품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분명히 인식하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모든 생활에 겸소, 절약하는 동시에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더욱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상적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는 이윤창출이지만 성경은 우리의 경제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의식입니다. 약 4:13에 보시면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부자의 전제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지적합니다. 그들은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일 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고 말합니다. 즉, 경제적인 이득이 그의 모든 생각과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다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계획이나 인도하심은 전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청지기, 즉 매니저가 아니라 주인, 즉 오너라고 생각하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 생명이 무한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이 얼마나 유한한지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며 자신은 잠시 맡은 관리자일 뿐이며 언젠가는 주인 앞에 서서 그 동안 일한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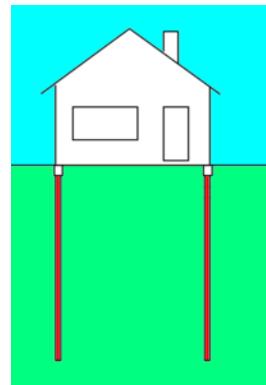
참된 청지기의 모습은 약 4:1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주의 뜻이면(Deo Volente: if the Lord is willing)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 한 달 후, 일 년 후, 그리고 먼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몇년 전, 제가 아는 한 네덜란드 친구로부터 청첩장을 받았는데 이렇게 시작하더군요. '저희 두 사람은 주님의 뜻이면 8월 31일 결혼할 것입니다.' 단 두 단어 '주님의 뜻이라면'이 그들의 믿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사를 예고할 때 그들은 이 D.V. 즉 Deo Volente라는 단어를 관용어구로 자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범사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충성함으로 마침내 한 순간에 무너지는 도성 바벨론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거룩하고 찬란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어린 양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 21:2-4)

## 말뚝 위에 세운 나라

네덜란드의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말뚝(paal)’입니다. 원래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모든 건물들을 지을 때 반드시 말뚝을 먼저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건축을 시작했다’를 네덜란드말로는 ‘첫 말뚝을 박았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건물이든 땅 속 깊이 수많은 말뚝들이 묵묵히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나무 말뚝을 사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암스테르담의 시내 한복판에 있는 왕궁(Koninklijk Paleis, Royal Palace)입니다(사진). 이 건물은 야콥 판 캄펜(Jacob van Campen)이라는 건축가가 1648년부터 건설에 착수하여 1665년에 완공하였으며 원래는 암스테르담 시청사였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13,659 개에 달하는 나무 말뚝이 사용되었으며 당시로는 천문학적 액수인 총 850만 걸더(약 400만 유로)의 건축비가 들었습니다. 이 나무 말뚝 숫자는 암스테르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으며 그 외우는 방법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1년은 365일, 앞에 1, 뒤에 9) 이 건물은 네덜란드가 국제 무역으로 세계의 부를 독점하던 17세기 황금 시대 (*de Gouden Eeuw, the Golen age*)를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왕궁 이외에 모든 다른 건축물에도 말뚝이 사용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대부분 보다 더 견고한 콘크리트 말뚝이 사용됩니다. 건물 이외에도 심지어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에도 말뚝을 박아 지반을 먼저 견고하게 하는 장면들을 네덜란드에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 또는 건설의 단가가 높아지지만 수명은 매우 길어서 암스테르담 시내의 집들을 보면 수백년 되었어도 여전히 사용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지반의 변화로 인해 말뚝이 기울어져 집들이 약간 기운 경우도 볼 수 있으나 받침대를 대면 여전히 사용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네덜란드 시인은 이런 시를 짓기도 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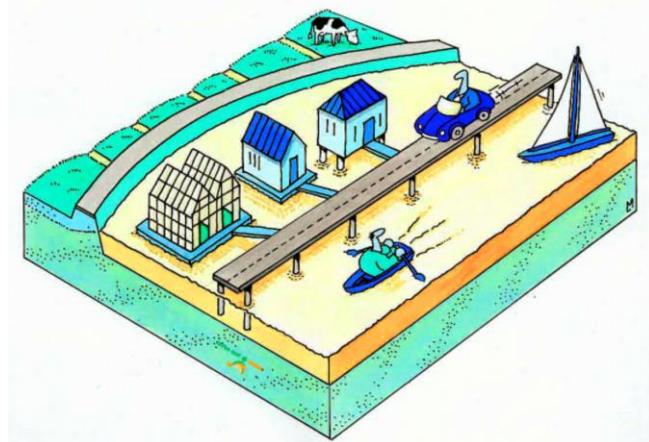
*Amsterdam die mooie stad  
is gebouwd op palen.  
Als die stad eens ommeviel  
wie zou dat betalen.*

아름다운 도시 암스테르담은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네.  
이 도시가 한번 무너지면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할까.

한국의 구 서울역사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암스테르담의 중앙역 건물도 1889년에 나무 말뚝을 박음으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뚝 공사는 네덜란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이 말뚝을 박는 일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모든 건축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네덜란드라는 나라 전체가 말뚝 위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말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지혜로운 건축자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 7:24-25) 우리가 온 우주를 지으신 가장 완벽한 건축가(Master builder)이신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 믿음의 집을 든든히 받쳐 주는 말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지하에 있는 말뚝들이 왕궁이든 집이든 아무 말없이 받쳐 주면서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수많은 말뚝들이 네덜란드의 모든 건물들을 지금도 받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묵묵히 떠받치는 말뚝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야간과 보아스가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왕상 7:21) 눈에 보이지 않든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약속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계 3:12)



## 풍차 신앙

네덜란드를 여행해 보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풍차를 보셨을 것입니다. 풍차는 말 그대로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다른 일을 하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풍차도 있습니다. 풍차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네덜란드에서 발달한 날개가 4 개 있는 것, 미국 등에서 사용되는 날개가 많은 것, 최근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펠러형 등이 있습니다.

풍차의 기원은 기원전 7 세기 페르시아 제국 지역에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주로 낮은 곳에 있는 물을 퍼올리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13 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풍차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 있는 풍차들은 약 11 세기경부터 제작된 것으로, 국토가 해수면보다 낮아 배수가 필요한 네덜란드 등지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17 세기경 네덜란드는 풍차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때에는 간척 사업이 대규모로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 되었습니다. 19 세기 이후 증기 기관의 발달로 풍차의 역할은 과거보다 많이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양수기를 대체하여 물을 대거나 풍력 발전을 위해 그리고 풍차의 회전 수를 보면 풍속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바람의 나라입니다. 전 국토가 거의 평평하고 산이 없어 일년내내 북해로부터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특유의 지혜로 풍차를 만들어냅니다. 기술도 단순한 풍차에서 매우 정교하고 규모도 커진 풍차들이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풍차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물을 퍼내는 풍차 외에도 나무를 자르고, 방아를 짚어 가루로 만들며, 기름을 짜거나, 향료를 갈아 향수를 만드는 풍차 등 다양합니다.

나아가 풍차는 사회, 군사적 기능도 했습니다. 가령 풍차 날개가 + 모양으로 정지해 있으면 지금 잠시 쉬고 있으나 곧 재가동한다는 의미이고, x 자로 정지해 있으면 당분간 휴업 중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풍차와 연결된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집에 혼인 또는 출산 등의 경사가 있을 때 풍차의 날개가 정점에 이르기 전 11 시 방향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점을 향한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반대로 날개가 정점을 조금 지나 서있으면 장례 또는 불행한 일이 있음을 알리는 사인이었습니다. 나아가 외적이 침입해 올 때에도 풍차로 서로 알려 마치 우리나라의 봉화 역할까지 했으며 특히 2 차 세계대전 중에는 지상에 있는 네덜란드의 레지스탕스군과 공중의 연합군 비행기 사이에 통신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풍차들은 지금도 북홀란드의 잔스 스칸스 (Zaanse Schans)에 있는 풍차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풍차가 많을 때에는 9 천 여개가 있어서 전국 풍차지도가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풍차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볼 수 있지만 특히 네덜란드 국민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1250 여개의 풍차 중에도 300 여개는 지금도 긴급히 배수를 해야 할 경우 가능하도록 풍차보존협회([www.molens.nl](http://www.molens.nl))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풍차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450 년경에 제작된 것이며 가장 큰 것은 높이가 44.8 미터에 달하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이기도 합니다.

강한 바람을 역이용하여 무공해 공장으로 변환시키는 통찰력과 지혜,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 준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떠한 역경이 와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풍차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롬 8:28)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의 바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풍차라고 하는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셀수록 풍차는 더 세계 돌아갑니다. 풍차가 더 세계 돌아갈 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로 우리는 더욱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영적인 풍차 메커니즘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이루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잔잔케 하시듯 우리 삶의 풍파를 잔잔케 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바람을 역이용하는 풍차를 만들어 내게 하신다면 더욱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하다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오히려 유럽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가장 바람이 많은 악조건 때문에 오히려 선진국을 건설한 네덜란드 국민들처럼, 풍차에 담긴 세계관과 영적 통찰력을 바로 이해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할 때 우리도 더욱 멋진 풍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암스텔담 북쪽에 있는 풍차마을 잔스 스칸스 (Zaanse Schans)

## 네덜란드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 트리플 포트 시스템(Triple Port System)

한 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도 유럽에서 ‘작은 나라이지만 알찬’ 네덜란드의 국제 경쟁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항 (airport), 항만 (seaport) 그리고 통신망 (teleport)입니다. 이 세가지를 트리플 포트 시스템(Triple port system)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환경적인 면에서 볼 때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지만 네덜란드는 이 세가지가 입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낳으며 주어진 환경을 매우 지혜롭게 활용하여 아주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국가 경쟁력은 우선 무엇보다 세계적인 국제공항인 스키폴(Schiphol)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항은 이전의 칼럼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유럽의 허브 공항으로 손색없는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의 항공 산업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네덜란드 국민들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로테르담 항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집중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었으나 전후 복구를 통해 계속해서 성장해 온 이 항구는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1962 년부터 최근 중국 상하이와 싱가포르에 자리를 내 준 2004년 이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구였습니다. (2004년 상하이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으로 3 억 8 천만톤을, 싱가포르는 3 억 7 천만톤 그리고 로테르담은 3 억 5 천 4 백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습니다.) 특별히 이 항구는 독일과 스위스를 관통하는 라인강과 벨기에와 프랑스를 가로지르는 마스 (또는 뮤즈)강이 북해로 흘러 들어가는 요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럽 및 전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중계 무역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함부르크 항과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항구가 경쟁 상대이지만 역시 ‘유럽의 관문 (Gateway to Europe)’으로 선두 위치를 굳게 지키고 있어 스키폴 공항과 함께 네덜란드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는 보이지 않는 통신망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암스텔담의 서쪽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텔리포트는 모든 정보 및 통신 분야에서 전 세계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우수한 기반 시설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교환원들이 항시 근무하여 수많은 정보 기술(IT) 기업 및 콜 센터들(call centers)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령 AMS-IX ([www.amx-ix.net](http://www.amx-ix.net))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큰 인터넷 익스체인지입니다. 인터넷 익스체인지(Internet Exchange)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이 독립적 네트워크를 가지면서도 서로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도록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입니다.

나아가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적으로 협력하면서 네덜란드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키폴 공항에서 로테르담 항구까지는 기차나 자동차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으며 암스텔담까지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육, 해, 공 입체적 영역에서 강력한 경쟁 시스템을 확보하였기에 네덜란드는 Shell, Philips, KLM 등 글로벌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대기업들의 유럽 법인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동북아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공항과 한국 국제 무역의 견인차인 부산항 그리고 세계에서 선두를 점하고 있는 IT 산업 등이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가 좀더 유기적이며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단지 경제적인 면에서만 보지 않고 영적으로 재해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제공권을 장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종말론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엡 6:12).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 처한 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허브망을 구축하여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에 글로벌 영적 리더십을 키워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해상권과 물류권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단지 영적인 부분 외에 구체적인 물질 부문에도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해외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열방의 보화들을 가지고(출 11:2; 12:35-36; 계 21:26)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 물류기지가 된다면 진정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산업과 IT 분야도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교회 및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한인들만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현지인 및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섬겨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목회자 및 선교사들과 평신도들의 노하우 그리고 특별히 해외의 2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 및 정보 기술 등을 유용한 자산으로 십분 활용할 때 우리의 영적인 글로벌 리더십도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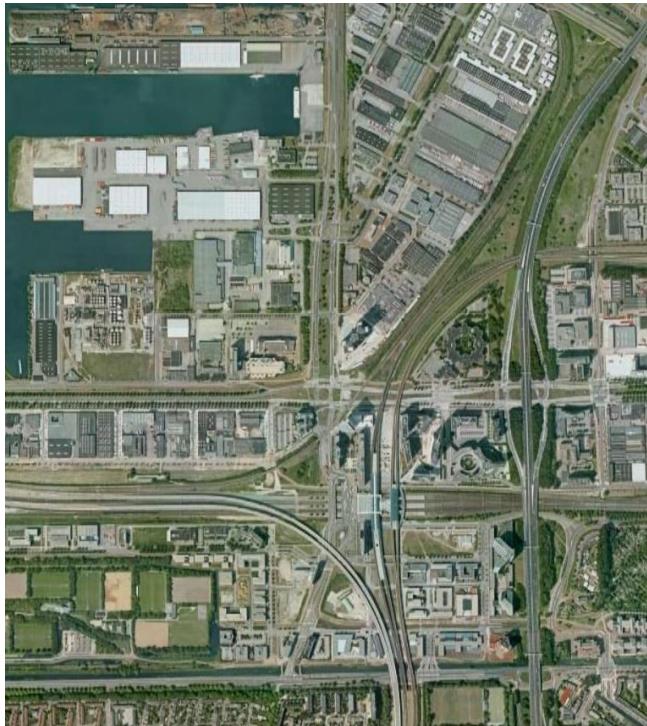
바라기는 이러한 트리플 포트 시스템의 비전이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및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글로벌 사역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되어 영적 물류기지로서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스키폴 공항



로테르담 항구



암스텔담 동쪽에 있는 텔리포트

## 배들의 지옥이 비행기들의 낙원으로

-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이 주는 교훈 -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을 이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유럽의 허브 공항으로서 전세계 여행객들로부터 그 편리함과 효율성에서 언제나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1980-81, 1984-86, 1990 그리고 2003년에 전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었으며 1988년에서 2003년까지 15년간 연속으로 ‘유럽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타 ‘최고의 비지니스 공항’으로도 뽑혔는데 그만큼 완벽한 공항 운용과 다양한 국제선 비행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항이 건설된 역사를 살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깊은 교훈을 받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1852년까지만 해도 거대한 호수였습니다. 이 스키폴 공항의 행정 구역 명칭은 Haarlemmermeer인데 이 말의 뜻은 할렘(Haarlem)의 호수라는 네덜란드어입니다. 결국 이 호수의 물을 다 퍼내고 공항을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이 해수면 보다 낮지만 특히 이 공항도 해수면보다 3-4미터나 낮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공항인 셈입니다. 하지만 1991년에 신축된 관제탑은 101미터로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입니다.

원래 이 호수에는 여러 종류의 배들이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었습니다. 산이 없고 평평한 나라이다보니 언제나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배들을 아무리 잘 묶어 두어도 서로 부딪히면서 깨어지는 사고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이 지역 주민들은 이 호수를 스키폴(Schiphol)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말은 네덜란드어로 ‘배(Schip, 영어의 ship)의 구멍(hol, 영어의 hole)’이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배들의 지옥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836년 11월 무시무시한 허리케인이 강타하면서 주변 지역까지 큰 피해를 입었고 많은 배들이 부서지자 그 곳을 땅으로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1837년 당시의 왕이었던 윌리엄 1세가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하였고 2년 후 보고서가 작성되어 바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호수 주변으로 링파트(Ringvaart)라고 하는 운하를 팠는데 그 길이는 61km나 되었고 깊이는 2.4m였습니다. 파낸 흙으로는 둑을 쌓았으며 운하를 둘러싼 지역의 넓이는 180km<sup>2</sup>였습니다. 당시 최초로 제작된 증기기관에 의해 호수에 있던 80억톤의 물을 퍼내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가장 악조건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한 네덜란드 국민들은 운하 건설, 개간 및 간척 공사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답게 결국 이 호수를 거대한 땅으로 바꾸었고 거기에 백년대계를 세워 간척된 땅을 농업, 화초 재배 등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중 15%의 부지에 세계적인 공항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1916년부터 군사 공항으로 사용하다가 1920년부터 민간 항공기가 취항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06년 통계를 보면 스키폴 공항은 46,065,719 명의 승객이 이용하면서 영국 런던의 히드로,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이어 유럽에서 네번째였고 화물의 경우 같은 해 1,566,828 톤을 처리해 파리와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3위를 차지함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허브 공항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현재 활주로만 6 개 있으며 7 번째 활주로도 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배들의 지옥이 비행기들의 천국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환경이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경을 어떤 세계관으로 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덜란드 국민들은 당장 배들이 파선되는 현실만 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느냐고 불평하거나 절망하며 운명론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바람과 물, 낮은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남은 가능성에 집중했고 그것은 결국 세계적인 공항이라고 하는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와 같은 위대한 신학자 및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와 같은 기독교 문화 철학자가 네덜란드에서 배출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창조 선물로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개발해야 하는 청지기적 비전과 문화적 사명 (cultural mandate)을 알았기에 자연 및 기후 환경은 가장 악조건인 네덜란드는 지금도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배들의 지옥이었던 가장 낮은 땅에서 가장 높은 관제탑을 건설하고 비행기들의 낙원을 건설한 그들의 세계관 속에 숨어 있는 영적 통찰력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할 때 우리도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키폴 국제 공항

## 내 인생 최대 위기 탈출기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의 큰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저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별 어려움 없이 자랐고 학교에서도 비교적 열심히 공부했으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소위 일류 대학을 마치고 혼역(번역병)으로 제대한 후 Philadelphia 의 Westminster 신학원에서 M.Div. 과정을 마쳤고 기독교 철학을 공부하려고 1989년 네덜란드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이 때부터 주님께서는 저를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부친 책들이 주인이 없다고 하여 되돌아가 (저는 그 때 한국에 있어서) 나중에 미국에서 아는 분의 귀한 도움으로 다시 대부분을 받았지만 그 와중에 좋은 책들을 많이 분실하였습니다. 결혼한 후 적당한 집을 구하지 못해 자주 이사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어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압박감도 컸습니다.

그래도 주님 은혜로 석사과정(Drs.)을 무사히 마치고 박사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정도 최선을 다했지만 신뢰하던 교수님 두 분께서 더 이상 논문지도를 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했을 때, 저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견뎌온 세월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워져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때 비로소 저는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의 끝까지 내려갔기에 염치를 차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기에 학위만 취득하면 귀국해서 대학교수가 되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박사학위가 저도 모르게 저의 우상이었음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그 후 귀국하기 위해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하루 전에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 걸음씩 새롭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교수님을 통해 마침내 2000년에 학위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1999년부터 독일의 쾰른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 주셨습니다. 쾰른에 부임하기 전 다른 도시에서 거의 청빙이 마무리되었지만 성사되지 않아 다시금 크게 실망한 적이 있었으나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쾰른에서 네 한인 교회들을 한 교회로 통합 하시면서 저를 그곳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주님의 놀랍고 크신 섭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작은 이 고백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시 50:15)

## 네덜란드의 개혁 철학협회 소개<sup>1</sup>

기독교 철학으로서 개혁 철학 (Reformatorische Wijsbegeerte, Reformational philosophy)은 1920년대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시자로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은 헤르만 도여베르트 박사(Dr. Herman Dooyeweerd)와 디르크 볼렌호븐 박사(Dr. Dirk H. Th. Vollenhoven)로 둘 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철학교수였습니다.<sup>2</sup> 그 외에도 반 리센(Van Riessen) 및 스퓜르만(Schuurman) 교수 그리고 미국의 클라우저(Clouser), 남아공의 스트라우스(Strauss) 그리고 영국의 채플린(Chaplin) 교수 등 다른 많은 학자들도 이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1935년에 ‘칼빈주의 철학 협회’ (De Stichting voor Calvinistische Wijsbegeerte, Association for Calvinistic philosophy)가 탄생하였으며 나중에는 이름이 ‘개혁 철학 협회’ (De Stichting voor Reformatorische Wijsbegeerte, Association for Reformational philosophy)로 바뀌었습니다. 1936년부터 학회지인 *Philosophia reformata*가 출간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 협회는 대학생들에게 기독교 철학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기독교 철학적 관점을 제시함으로 공헌하고 있습니다.

도여베르트와 볼렌호븐은 칼빈주의적 전통에 기초하였고 정치가였던 기욤 흐룬 반 프린스터러(Guillaume Groen van Prinsterer) 및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Dr. Abraham Kuyper)의 영감을 받아 전통적인 스콜라적 기독교 철학 및 근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철학에 대응하는 기독교적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스콜라적 전통은 기독교적 신앙과 인본주의적 사고를 종합하여 철학이 자체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연 영역과 기독교 신학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초자연적 영역을 분리시킨다고 비판하였고 근대 인본주의는 모든 인간의 사고가 전이론적이며 종교적인 기본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통찰을 무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도여베르트의 주저 ‘이론적 사고의 신비판’ (Amsterdam/Philadelphia, 1953-1956) 네 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본서에서 그는 철학적 사고가 전이론적 혼신없이 독자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거나 그러한 자율적 입장과 기독교 신앙이 종합될 수 있다는 입장을 폐기합니다.

<sup>1</sup> 본고는 한국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요청으로 개혁철학협회 홈페이지([www.aspecten.org.srweng.webadres.nu](http://www.aspecten.org.srweng.webadres.nu))에 실린 내용을 제가 편집, 번역한 것입니다.

<sup>2</sup> 두 사람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는 필자의 아래 두 논문 참고. 최용준, “헤르만 도여베르트: 변혁적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철학의 성격을 확립한 철학자”, 손봉호 외,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 9인*, 서울: IVP, 2005. pp. 37-66. 최용준, “디르크 볼렌호븐의 생애와 사상”, *기독교 철학*, 제 6호, 서울: 한국기독교철학회, 2008년 여름, pp. 105-131. 본 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도여베르트 철학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네덜란드 외에도 미국, 캐나다, 호주, 남아공 및 한국에서도 추종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에는 도여베르트 재단이 설립되었고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리디머 대학에는 도여베르트 센터가 세워졌으며, 미국 아이오와에 있는 돌트 대학에는 카이퍼 센터가 만들어졌고 하바드 신학대학원에는 카이퍼 강좌가 매년 개설되었습니다. 도여베르트의 법학적 문서들 (Juridical archives)은 캐나다 토론토의 기독교 학문 연구소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935년 이후부터 칼빈주의적 전통에 서 있는 철학자들 간에 국제적 협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국제 네트워크는 영감과 개신의 근원이 되어왔습니다. 매 5년마다 본 협회는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왔으며 매번 중부 유럽 및 동부 유럽에서 더 많은 학자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러한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되어 가까운 시일내에 연합 연구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혁 철학에 관한 안내서로 다음과 같은 책들이 출판되었습니다.

- J.M. Spier. Inleiding in de Wijsbegeerte der Wetssidee(법철학 서론). Kampen: J.H. Kok, 1939.
- L. Kalsbeek. De wijsbegeerte der wetssidee. Proeve van een christelijke filosofie(법철학: 기독교 철학의 한 시도). Amsterdam: Buijten en Schipperheijn, 1970. (본 서는 한국어로 번역됨)
- R. van Woudenberg. Gelovend denken. Inleiding tot een christelijke filosofie(신앙적 사고. 기독교 철학 서론). Amsterdam/ Kampen: Buijten en Schipperheijn/Kok, 1992.
- R. van Woudenberg, red. Kennis en werkelijkheid(지식과 실재). Amsterdam/Kampen: Buijten en Schipperheijn/Kok, 1996.

개혁 철학 협회의 아카이브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 있는 네덜란드 개신교 역사 문서(1800년 이후) 센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몇몇 개혁 철학 교수들의 개인 문서들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도여베르트, 메케스(J.P.A. Mekkes), 반 리센(H. van Riessen), 볼렌호븐(D.H.Th. Vollenhoven) 그리고 자우데마(S.U. Zuidema) 등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문의는 네덜란드 신칼빈주의 분야의 교수이며 1800년 이후 네덜란드에서 이 운동에 관한 문서들을 정리하고 관리하면서 네덜란드 사회에 이 개혁 철학의 중요성에 관한 역사적 연구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하링크 박사(Dr. George Harinck)에게 하면 됩니다.

개혁 철학 협회는 약 6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매년 협회의 다양한 출판물들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Beweging(운동)이라고 하는 격월간지, Aspects라고 하는 계간 소식지 그리고 일년에 두번 발행되는 Philosophia Reformata입니다. Aspects는 국제 회원들을 위해 영어로 출판됩니다. 기타 Verantwoording(책임)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철학 시리즈 도서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두권의 책이 출판되는데, 대부분 본 협회의 교수들에 의해 집필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특별 할인가격으로 이 시리즈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 협회의 임원회는 아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장 Drs. A. Berger, 부회장 Drs. D.A. Meinema, 사무총장 Drs. W. Vollbehr, 회계 Mrs. drs. M.J.C. Blok, 총무 Dr. G.J. Buijs, 국제 관계 담당 Dr. A.C. Geljon, Drs. Gerben Groenewoud, 마케팅 및 PR 담당은 T. Zeldenrust 그리고 학생들 연락담당으로 Mrs. Ida Slump입니다.

본 협회 사무소는 네덜란드의 주스트(Soest)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장은 Mrs. drs. Hillie J. van de Streek입니다.

또한 1947년부터 개혁 철학을 대학에서 특별 석좌교수로 강의할 수 있게 되었는데 현재 섭기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6명이며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 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Dr. Gerrit Glas (Leiden University)

Dr. Roel Kuiper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Dr.ir. Marc de Vries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Dr. Maarten Verkerk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 Maastricht University)

Dr. Jan Hoogland (Twente University of Technology)

Dr. ir. Henk Jochemsen (Wageningen University of Agriculture)

본 협회의 이사회는 아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rof. dr.ir. Jan H. van Bemmel (이사장)

Prof. dr. Jan J. Graafland (틸부르그대학교)

Prof. dr. Sander Griffioen (자유대학교 은퇴교수)

Prof. dr.ir. Teunis M. Klapwijk (델프트공대)

Prof. dr. Gerard Nienhuis (레이든 대학교)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specten.org](http://www.aspecten.org)(화란어), [srweng.webadres.nu](http://srweng.webadres.nu)(영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말론적 긴장감

최근 제가 읽은 책은 *Hope in Troubled Times: A New Vision for Confronting Global Crises* (어려운 시대의 소망: 글로벌 위기를 직면하는 새로운 비전)라는 제목으로 밥 하웃즈바르트(Bob Goudzwaard), 마크 반데어 베넌 (Mark Vander Vennen) 그리고 데이빗 반 헤임스트(David Van Heemst) 이렇게 세 분이 쓴 책입니다. 하웃즈바르트 교수님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계시다 은퇴하셨으며 네덜란드 국회의원도 지내신 분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챤이시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경제 전반에 대해 많은 글들을 쓴 분입니다. 반데어 베넌은 캐나다 온타리오에 살고 있는 사회복지사이고 반 헤임스트 교수는 미국의 올리벳 나사렛 대학교(Olivet Nazarene University)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추천사 겸 서문은 남아공의 유명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Desmond M. Tutu) 주교가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에 출판된 책들 가운데 ‘종말(end, last, final)’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넣은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1993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라는 일본계 미국인 정치학자가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유 민주주의가 인간이 진화해 온 정치 제도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어 1997년에는 미국의 환경주의자인 빌 맥키번(Bill McKibben)이라는 분이 *The End of Nature* (자연의 최후)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기후 변화에 대해 가장 먼저 경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해인 1998년에는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존 호르간(John Horgan)이라는 분이 *The End of Science: Facing The Limits Of Knowledge In The Twilight Of The Scientific Age* (학문의 종말: 과학 시대의 황혼에서 지식의 한계)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그는 자연 과학과 인간의 지식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2000년에 들어와 다니엘 벨(Daniel Bell)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수는 *The End of Ideology: On the Exhaustion of Political Ideas in the Fifties, with "The Resumption of History in the New Century"* (이데올로기의 종언: 50년대 정치 사상의 규명 및 새로운 세기 역사의 속개)라는 책을 냈습니다. 원래 이 책은 1960년에 나왔지만 2000년에 수정판이 나온 것입니다. 이 책에서 벨 교수는 19세기 및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인본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이제 종말에 이르렀으며 새로운 단지 국지적인 이데올로기들만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5년에는 샘 해리스(Sam Harris)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The End of Faith: religion, terror and the future of reason* (신앙의 종말: 종교, 테러 그리고 이성의 미래)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Sam은 전통적인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판하면서 신앙의 시대는 끝이 났고 오히려 이성을 더 강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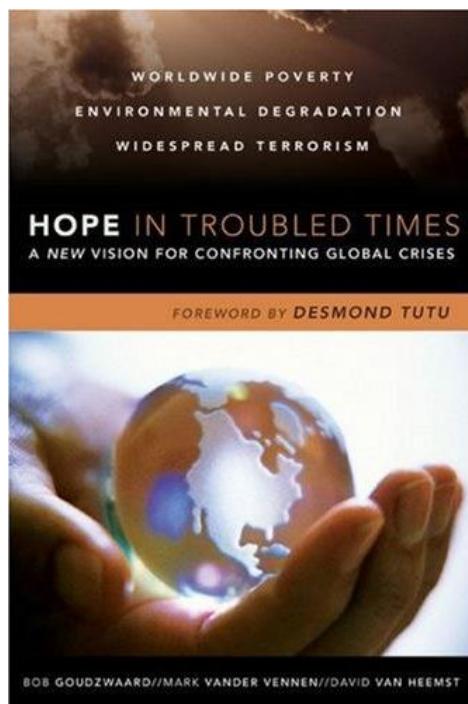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더욱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지난 2004년에는 영국의 천문학자인 마틴 레이스 경(Sir Martin Rees)이 케임브릿지에서 출판한 *Our Final Century: Will Civilization Survive the Twenty-first Century?* (우리의 마지막 세기: 인류문명이 과연 21세기에 생존할까?)라는 책입니다. 이보다 한 해 전 그러니까 2003년에는 이 분이 뉴욕에서 *Our Final Hour: A Scientist's Warning: How Terror, Error, and Environmental Disaster Threaten Humankind's Future In This Century - On Earth and Beyond* (우리의 마지막 시간: 한 과학자의 경고: 테러, 실수 그리고 환경 재앙이 어떻게 이 세기에 이 지구와 지구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두 책의 요점은 지구와 인류의 생존이 현대 기술의 영향으로 매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21세기야말로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증거들을 근거로 이 분은 인류가 2100년까지 생존하거나 멸망할 확률을 50 대 50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책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말의 징조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일반 학자들까지 주장한다는 사실이 그 신빙성을 더욱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글로벌 금융 위기는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전을 통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괴상적으로 보면 지구촌 전체가 계속 진보하여 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세계적인 빈곤, 환경 오염의 악화 그리고 날로 확산되는 테러리즘 때문에 지구촌은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수였던 샤끄 엘루은 현대의 과학기술이 오히려 인류를 배신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이상 대안이 없다 (There is no alternative.)”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절망을 줄 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류는 진정한 소망을 갈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서 언급한 3명의 저자들은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그 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모두 함께 정직하게 일하고 노력하면서 좀더 청지기답게 지혜롭고도 희생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현대 문명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심연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따를 때 현대의 우상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과학 기술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환경을 잘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나 아직도 이 땅의 나라에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 더욱 분명한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남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빌 2:12).



## 제 2 부 하나됨의 비전을 체험한 독일

## 지하 교회 237년의 역사

쾰른(Köln)은 독일에서 베를린(Berlin), 함부르크(Hamburg), 뮌헨(München)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인구 백 만의 도시이며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도 매우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로마 제국이 북쪽으로 확장되면서 올리우스 시저가 주전 53년에 라인강 서쪽의 쾰른을 정복하면서 그 이름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는 뜻의 콜로니아(Colonia)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 출신으로 유명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아그립피나(Agrippina)입니다. 이 여인은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오(Claudius, 참조, 행 11:28; 18:2)와 결혼하게 되고 이 여인에 의해 쾰른은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 그녀에게는 이미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가 바로 네로(Nero)였습니다. 이 여인은 정권욕에 불타 우유부단한 성격의 남편을 독살하고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들었으나 결국 그녀도 아들 네로에 의해 독살되는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고 네로는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악명 높은 황제가 됩니다. 특히 64년에는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산 채로 기름을 부어 햇불로 사용하였고 바로 그 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쾰른은 유럽의 중심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물이 고딕 양식으로 된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대성당입니다. 1164년 프레드릭 바바로사(Frederick Barbarossa) 황제가 밀라노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그곳에 있던 동방박사 유해를 쾰른으로 가져와 당시의 대주교인 라이날드 폰 다셀(Reinald von Dassel)에게 헌정하자 이 동방박사 유해를 모시기 위해 1248년에 성당 건축을 시작하였고 이 성당을 건축하는 데에만 632년 걸려 1880년 마침내 완공했습니다. 중간에 100년 정도 공사를 중단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쾰른 가톨릭 대교구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곳 중의 하나이며 대성당 하나만으로 쾰른은 독일에서 매년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도시입니다.

또한 1388년에 개교한 쾰른 대학교는 지금도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합대학교입니다. 중세 시대 최대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이 대학에 와서 스승이었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 대학교는 지금도 법학, 의학, 경영학 외에도 중세 신학 및 철학이 매우 유명합니다. 그리고 쾰른대학교의 공식 명칭은 아직도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대학교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십자군이 대성당 앞에서 출발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1096년)에 쾰른에 정착하여 은행업을 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 살해 당했으며 회당이 불타고 군비를 강제로 후원해야만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대인 박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대성당 앞에서 마틴 루터의 논제들은 불태워졌고(1520) 개신 교도들은 박해를 받아 대표적인 두 지도자 클라렌바흐(A. Klarenbach)와 플리스테덴(P. Fliesteden)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1529).

특별히 개신 교도들이 쾰른에 모이기 시작한 것은 개혁 이후 쾰른이 라인강을 끼고 한자(Hansa)무역도시로 발전하면서 스페인의 가톨릭 지도자 알바(Alba) 공의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지에서 개신교 상인들이 몰리면서부터였습니다. 이들이 경제권을 서서히 장악해나가자 가톨릭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꼈고, 동시에 알바 공의 경고도 있어 시의회를 열어 개신교도의 집회 및 예배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1565년에 가결하게 됩니다. 그러자 개신교도들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지하에서 비밀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정집 지하실에서 10명에서 15명이 모여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얼마 후에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한 목회자가 여러 집을 순회하면서 숨을 죽이며 찬송하면서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하교회 역사는 하루 이틀 혹은 1-2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237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1794년부터 1814년까지 불란서의 나폴레옹이 쾰른을 점령하면서 비로소 개신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1802년 5월 23일 주일, 쾰른의 개신교도들은 시내 중심의 안토니터 교회 (Antoniterkirche)에 함께 모여 감격적인 첫 번째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당도 원래는 성당이었으나 나폴레옹이 강제로 개신교도들에게 예배당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은 쾰른의 개신 교회가 20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해였습니다.

저는 이 쾰른의 지하교회 역사를 보면서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들이 여러가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신앙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신앙의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글라우디오와 아그리피나



쾰른 전경



안토니터 교회

## 한국 교회를 사랑으로 섬긴 한 독일 목사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국을 사랑하였고 한국 교회를 섬기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에른스트 유트(Ernst L. Judt)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분은 현재 부어바흐(Burbach)라고 하는 독일 중부의 작은 마을에 사모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연세가 팔순이 넘으셨으나 비교적 건강하십니다. 이 목사님 댁에는 과거에 한국교회를 섬기시면서 찍으신 사진, 슬라이드, 보고서 그리고 심지어 영화 필름까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면 이것을 인수하여 보관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에 한국의 신학대학원 도서관이나 교회사 박물관에서 인수하여 보관하면 후대에 역사적으로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방송팀이 다큐멘터리로 제작한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유트 목사님께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섬기시게 되셨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이 분은 독일 교회 목사님이었지만 화란 개혁 교회 목사님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1965년 여름, 유트 목사님께서 네덜란드 캄펜(Kampen)에 가셔서 화란개혁교회(소위 31조파, Vrijgemaakte Kerk) 목사님들과 교제하시던 중 당시 한국에서 유학 오신 차영배 목사님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차 목사님이 휴가 기간 중 유트 목사님 댁에 머물게 되면서 최초로 한국과의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1966년 가을에는 김영재 목사님(합동신학원 교회사 교수)께서 영국 브리스톨(Bristol)에서 독일 부퍼탈(Wuppertal) 신학원으로 유학 오시게 되면서 유트 목사님을 알게 됩니다. 이듬해인 1967년 1월, 김 목사님 사모님께서 한국 부산에서 5명의 간호사와 함께 서독으로 오시도록 도와 주시게 됩니다. 당시 많은 한국의 간호사들이 서독으로 올 때였지요. 그러면서 유트 목사님께서는 한국에 대해 점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 후 한국의 경남 고성에 있는 고아원을 돋기 위해 1969년부터 70년 겨울까지 유트 목사님께서는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침내 1971년 6월, 독일 국가교회 비트겐슈타인 (Wittgenstein) 지역노회는 유트 목사님께서 한국을 도우시기 위한 방문을 협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해 8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유트 목사님께서는 7주간 동안 서울 및 부산지역을 방문하시면서 개척 교회, 신학교 그리고 고아원들을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 후부터 유트 목사님께서는 소위 한국 돋기 캠페인 (Korea-Aktion)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매년 특별 현금을 모아 개척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지원하는 등 꾸준히 한국 교회와 불우한 이웃들을 섬기셨습니다. 1972년 3월, 독일의 포이딩엔(Feudingen) 교회는 김영재 목사님을 부교역자로 임용하기로 결정함으로 1972년 9월에 김 목사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독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여름에는 한국에서 10명의 간호사가 초청받아 돌라(Dorlar)라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 후 1975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유트 목사님은 노회장이신 하인리히(Heinrich)목사님 내외분을 모시고 다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1978년 여름에는 독일 교회의 지원으로 고성 고아원에 새 건물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고 1979년 10월 11일에 유트 목사님 참석 하에 고아원의 새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1980년 3월 4일, 김영재 목사님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 가신 후 1980년 6월에 고 이근삼 박사님께서 비트겐슈타인을 방문하여 노회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 후 1984년 10월에 유트 목사님 내외분께서는 다시 고성 고아원과 부산의 고신 신대원을 방문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시 신학생들중에는 영양실조로 결핵환자가 많았으며 따라서 그들을 위해 고기를 많이 사주셔서 고기국을 먹였다고 하여 유트 목사님의 별명은 '고기 목사님'이었습니다. 1987년 12월에 마침내 지난 20여년간 계속된 한국 돋기 캠페인(Korea-Aktion)이 종결됩니다. 유트 목사님께서 그동안 한국교회 및 고아원을 섬기기 위해 후원한 금액은 당시 액수로 총 70만 도이치 마르크(DM)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트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보고서 "Nicht zu weit gegangen"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귀한 헌신과 사랑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사랑의 빛을 깊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른스트 유트 목사님

## 목회자 수련회(Pastoralkolleg)를 다녀와서

지난 2005년 3월 7일(월) 오후 3시부터 11일(금) 점심까지 부퍼탈(Wuppertal)에 있는 독일 라인란드교회 신학교(Kirchliche Hochschule) 캠퍼스에서 열린 목회자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전해에는 렁스도르프(Lengsdorf)에서 열렸으나 계속되는 독일 교회의 재정난으로 부득이하게 그곳은 폐쇄되어 매물로 내어 놓았고 나중에 매각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신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있어 부퍼탈 신학 센터(Theologisches Zentrum Wuppertal)라고 불립니다. 가령 외국인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주는 킥(KiKK: Kirche im Interkulturelle Kontext) 코스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도 강의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곳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나라에서 온 크리스천-유대인-모슬렘 학자들과 학생들이 모여 일주일간 함께 지내며 대화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상호 이해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들과 모슬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발견할 수 있기를 저는 중보기도했습니다.

목회자 수련회는 독일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재교육(Fortbildung)하기 위한 과정인데 외국인교회 목회자들에게도 무료로 개방하여 제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모임의 주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매우 신학적인 주제라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기도 했으나 킥 코스를 주관하시는 옵라우(Oblau)목사님의 권유로 참가하고 보니 매우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첫 날에는 서로 인사하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센(Essen), 두이스부르크(Duisburg), 뮌헨글란바흐(Mönchengladbach), 오이스키르헨(Euskirchen), 뒤셀도르프(Düsseldorf), 본(Bonn), 쾰른(Köln), 크레펠트(Krefeld) 등지에서 오신 목사님들 9분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강사 모두 11분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은퇴하셔서 연세가 아주 많으신 목사님도 오셨는데 이 분은 알고 보니 뒤셀도르프 순복음교회가 현재 사용하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이셨더군요. 그 외에도 외국인교회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옵라우 목사님과 인도 목사님(Rev. Dr. George Melel)이 오셨고 한국 여자분으로 두이스부르크에서 사역하시는 분도 오셔서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강사로 오신 볼프 크뢰커(Wolf Krötke)교수님은 동독 출신으로서 현재 베를린의 훈볼트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동독 시절에 많은 꽁박을 받아 특수 감옥에서 2년간 복역하신 경험도 있으십니다. 그 후 고전어(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교사를 하시면서 신학을 가르치시다 통일된 후 훈볼트 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매일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마다 간단한 경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숙사를 새로 개조하여 첨단 도서관으로 만들었는데 그 3 층 다락방을 채플실로 아담하게 꾸며 놓았습니다. 다니엘의 잃어버린 조국을 위해 매일 세 번씩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조국을 위해, 독일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교수님으로부터 간단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중세의 자연신학적 접근, 근대 독일 신학 그리고 칼 바르트의 새로운 방법을 통해 많은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계시가 아닌 이성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려 했는데 그 방법으로는 최초의 원인을 추구하는 방법(*via causalitatis*: 하나님은 모든 것의 궁극적 근원이시다), 부정적 방법(*via negations*: 가령 인간은 유한하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리고 탁월성을 적용하는 방법(*via eminentia*: 가령 인간은 지혜로우나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다)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알 수는 없기에 결국 하나님에 대해 인간은 침묵할 수 밖에 없다는 신비주의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근대에 들어와 임마누엘 칸트 등 계몽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합니다. 중세 시대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면 이 시대는 주관적인 이해를 강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슬라이엘마허(Schleiermacher)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종교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즉 종교를 하나님의 ‘감정(Gefühl)’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관화는 포이엘바흐(Feuerbach)와 같은 학자들의 비판을 받아 결국 하나님은 인간 이상의 투사(projection)라는 극단적 입장을 낳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환상에 불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을 극복한 신학자가 바로 칼 바르트입니다. 히틀러에 대항하여 양심 선언적인 바르멘 선언(Barmen Erklärung)의 기초를 작성하기도 했던 바르트는 하나님의 속성을 주관화하거나 객관화하는 양 극단을 지양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후에는 크뤽커 교수님께서 쓰신 글(무신론의 비진리성)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의 관심은 구 동독 지역에 지배적인 무신론자들을 어떻게 재복음화할 것인가였기 때문에 교수님께 질문 드렸을 때 교수님의 대답은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구 동독지역에는 이제 더 이상 빌리 그래함 전도집회와 같은 대중

전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설명해주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장차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북한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 오전에는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강의도 듣고, 교수님의 논문을 읽은 후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있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두 가지 대립되는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숨어계신 하나님으로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특히 두 번째의 경우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오히려 우리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권능을 받아(empowered)’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야외로 나갔는데 부퍼탈의 한 기차역으로 내려가면서 유명한 공중 전차 (Schwebebahn, 부퍼강 위로 철골물을 설치하여 전차가 매달려 감)도 보았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칼 마르크스를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바로 이 부퍼탈 출신인데 원래는 매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을 수 있는가를 다시금 새겨 보는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반 기차로 졸링엔(Solingen: 쌍둥이 칼로 유명함)에 가서 졸링엔과 램샤이드(Remscheid) 사이의 깊은 골짜기를 연결하는 100년 된 철교를 보았습니다. 뮁스테르터 철교(Müngsterner Brücke)라고 불리는 이 철교는 당시 독일의 황제 빌헬름 1세가 직접 와서 준공 테이프를 끊을 정도로 대단한 공사였다고 합니다. 이 철교 밑에 부퍼강이 흐르고 있어 지금도 주말이면 많은 인파들이 몰려 드는 휴식처입니다. 다시 등산하여 역으로 와서 기차로 부퍼탈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한 후 간단한 채플을 가진 후, 저녁 8 시 15 분부터는 크뢸커 교수님의 동독시절 경험을 들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과 고난 등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을 귀하게 연단시키셨다고 느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동서독 통일의 경험이 남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수님께선 자신의 지도로 박사 논문을 쓰는 한국 학생이 세 분이나 있다고 하여 더욱 놀랐고 한편 더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저녁의 남은 시간에는 설교 준비도 하고, 제가 당시에 쓴 책(하나됨의 비전)에 관한 자료들을 신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와 리서치도 하였습니다. 좋은 자료들을 마음껏 보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넷째 날 오전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논문을 읽고 토론했으며 오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 논문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교수님의 신학적 입장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령 창세기 2장을 단순히 신화로 보는 점과, 타락 이전에도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칼 바르트의 입장을 추종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신학적 통찰력을 받는 부분도 있었는데 가령 “하나님의 영원성을 전 세계를 위한 소망의 근거(Gottes Ewigkeit als Grund der Hoffnung fuer die ganze Welt)”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그 분의 나라가 영원하기에 우리의 소망도 확실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도 분명한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채플시간에 성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되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채플 후에는 크뤽커 교수님께서 저의 집필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직접 도서관에서 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서로 평가 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귀한 만남과 교제를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리고 외국인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무료로 이런 자리에 참여하도록 배려해 준 독일 라인란드 교회에 또한 감사 드리며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채플 시간에 불렀던 독일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떠올라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Ich dank daß ich danken kann.,,(내가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부퍼탈의 공중전차(Schwebebahn)



뮌스테르너 철교 (Müngstener Brücke)

## Eins (하나)

지난 2004년 10월 3일, Bad Honnef Jugendherberg에서는 퀼른한빛교회 다니엘 청년회 수련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수련회의 주제는 ‘Eins’, ‘하나’였습니다. 한국에서 특별 제작한 붉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주제를 새겨 넣은 티셔츠와 익투스(Ixthus: 그리이스어로 ‘물고기’라는 뜻,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그리스도인들의 상징)를 새겨 넣은 십자가를 목에 건 청년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할 수 없었습니다.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개회 예배에서 전했던 메시지를 간단히 요약하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신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삼위는 다시 하나, 일체이십니다. Trinity 란 Tri+Unity 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산수에서  $1+1+1=3$  이지만  $1\times 1\times 1=1$  이지요? 이것이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삼위라고 하는 다양성(Diversity)과 함께 일치성(Unity)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형상을 닮은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각각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룹니다.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는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주님은 머리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바로 이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당파를 만들립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게 함으로써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함으로써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서로와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바로 이 ‘하나됨’의 신비로운 축복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이 ‘하나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주님과 다시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진정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탄의 세력은 이 하나님을 파괴하기 위해 온갖 공작을 꾸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미리 기도하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1절과 22절을 보면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11 절은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을 염두에 둔 기도요, 22 절은 장차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어쩌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교회의 분열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 장 3 절에도 보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을 지키도록 역사할 때 우리도 그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2 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할 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온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유란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강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창 13:7-18; 민 12:3; 마 11:29; 행 16:35-40; 고전 6:7).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내로서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자비를 뜻합니다(고전 7:13; 베전 3:2).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 장 4-6 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된 진리를 설명합니다. 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감화하심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유기체가 됩니다. 유기체(Organism)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 부분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inter-dependent)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주님을 믿고 같은 세례를 받으며 한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천국 가정입니다. 이렇게 서로 섬기며 협력할 때 우리 모든 지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13 절). 각 지체의 모습과 은사와 사역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 가운데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세기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세기 만에 놀랍게 부흥했으며 이제는 세계 선교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부끄러운 것은 바로 ‘분열’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많이 분열한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분열의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역행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9년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 쾰른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약 20년간 서로 다른 교파, 서로 다른 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건입니다. 지난 1999년 6월 6일 역사적인 ‘통합예배’를 드렸고 이 이야기는 유럽 전역에 모범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입니다. 주님께서 갯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기도가 응답된 사건인 동시에 분열로 얼룩진 한국 교회에 ‘회복’의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되어 빛을 발하라’는 비전을 주셨고 따라서 교회의 이름도 ‘한빛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에 다시금 하나님을 회복하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지킴으로 모든 한국 교회에 ‘role model’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분열의 상처로 아파하는 한국 교회에 ‘하나됨’의 회복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 청년회 수련회에서 이 메시지를 전한 날은 마침 독일이 통일된 날(10월 3일)이었습니다. 웰른에 한빛교회가 탄생한 해는 독일이 통일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는 한국 교회의 ‘하나됨’이 회복될 때 한국의 통일도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유일한 분단국가인 조국이 진정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며, 회복시켜 나갈 때 주님께서는 남과 북도 하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 미주뉴스앤조이 인터뷰 기사<sup>1</sup>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 안에서 하나됨’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 역사는 곧 ‘분열의 역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최용준 목사는 <하나됨의 비전>이라는 책을 통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이 분열하면서 지은 이름이 어이없게도 합동(合同)과 통합(統合)이라면서 이런 한국교회에 사도 바울이 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지셨습니까?’라고 놀성을 발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최 목사는 한국 교회의 퇴보의 원인으로 분열된 교회 현실을 꼽았다. 또 분열에 대한 치열한 자기반성 없인 부흥도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민 교회를 향해선 ‘고립된 교회’(ghetto-church)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교회의 연합뿐 아니라 이민 교회들이 다문화·다인종 교회로 자라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일에서 서로 다른 네 교회의 통합을 이끌어 낸 최 목사가 말하는 교회 통합의 의미와 가능성은 들어봤다.

### 교회 통합을 훌륭하게 이끌어냈다고 평가 받았다.

내가 한 것이 결코 아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셨다. 계획한 것도 아니다. 성령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에 가능했다.

### 연합의 과정에서 교회론이나 복음의 순수성에 대한 타협이나 훼손은 없었나?

가령 교회의 정관이나 기관들의 명칭, 직분 등과 같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서로 과감한 양보가 있었지만 본질에는 더 충실했다. 오히려 더욱 복음적인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순수한 복음 안에서만 진정한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적인 설교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인 ‘하나인 교회’ (Una Ecclesia)를 강조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독일·영국·화란 등에서 저명한 복음주의 설교자들을 초빙해 말씀을 들었다.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순수성에 충실할 때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 한국 교회나 다른 이민 교회들도 그런 통합이 가능할까? 문화적·상황적 차이도 크고, 더군다나 한국 교회는 이념적으로도 분열의 뿌리가 깊다.

독일의 한빛교회도 한인 교회다.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기보다 분열에 대한 자성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비워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다만 통합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목회자가 여러 사람일 땐 공동 목회도

---

<sup>1</sup>본 기사는 2007년 03월 05일 미주 뉴스앤조이에 실렸는데 저의 원고를 박지호 기자가 정리한 것입니다.  
<http://www.newsjoy.us/news/articleView.html?idxno=60> 참조.

가능하다. 그리고 반드시 외형적으로 통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강단 교류’나 ‘연합 예배’ 또는 공동 행사 등을 통해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해 나가는 것도 좋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면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 **교회의 분열이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의 개현 과정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분열할 경우 그 사회의 문화를 변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동화되거나 닮아가게 된다. 한국의 문화가 외형주의로 흐르는데, 교회가 이런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물량주의에 빠져 무리한 건축에 집중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

### **한국 교회는 분열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고, 지금도 거듭하고 있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나.**

크게 두 가지다. 명분 없는 교권 싸움과 사소한 의견 충돌이 주된 원인이다. 가장 많이 분열한 장로교회의 경우 몇 가지 큰 분열을 제외하고 상호 배타적인 태도 및 교권 싸움이 모든 분열의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의견 충돌이다. 예배 방식이나 교회 건축 문제 등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개교회의 분열을 양산한다.

### **하지만 교회들은 이런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내고 있다.**

분열에 대한 ‘무감각 증세’도 분열을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이다. 교회의 분열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것이 큰 문제다. 분열이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죄라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열을 주도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 **한국 교회 성장이 멈추고 퇴보하는 주된 요인을 ‘분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간혹 수평이동으로 인해 부흥하는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 숫자는 오히려 감소 추세다. 반면 가톨릭은 증가하고 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심지어 불교로도 개종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현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교회의 분열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도 요 17:21에서 이미 지적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 **분열에 대한 치열한 반성 없인 한국 교회에 유행처럼 번지는 ‘부흥’도 요원하다는 뜻인가?**

분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회개는 마땅히 부흥의 선결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책에서도 밝혔지만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 협의회’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실무 9 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합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실무 9 인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선언

'전문'을 작성했고, 이후 구체적으로 '한국교회 연합 이행과정 10 단계'를 채택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교회연합'이라는 준비위원회가 2007년 상반기에 구성되어 연합기구가 탄생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양대부흥운동은 분명히 회개운동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교회가 지난날의 분열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회복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의 축복을 허락하시리라 본다.

**교회의 영적인 하나님 이념이 놓은 분열까지도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남북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조심스럽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회복할 때 통일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동·서독 교회가 유지한 '특별한 유대 관계(besondere Gemeinschaft)'가 독일 통일의 불씨가 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하고, 이념의 벽을 뛰어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그 능력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이민 교회가 갖는 분열 양상의 주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합집산하다 보니 교민 사회도 사분오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민 사회는 교회의 분열이 교민 사회의 분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럽의 경우에도 교회가 분열하자 교민 사회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겼고,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도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엇보다 무인가 신학교의 난립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이 교회, 교단의 분열 및 난립과 직결된다.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목회자를 양산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만든다. 화란교회가 화란 내에서는 많은 분열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CRC라고 하는 큰 교단을 이루어 칼빈대학교 및 신학대학원과 같은 수준 높은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사실을 미주의 한인 교회 지도자들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힘을 합친다면 세계적인 수준의 기독대학 및 신학교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안은 없나.**

이제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더 이상 한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현지의 모든 민족들을 섬길 수 있는 역량을 쌓아가야 할 때라고 본다. 1세들은 언어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2세들은 그런 벽을 이미 넘어서 있기 때문에 '다민족' 내지는 '다문화' 교회가 가능하다. 벨기에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바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안디옥교회처럼 말이다.

우리 교회에 장로와 앤수 집사 중에 벨기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교회 리더모임에서는 영어로 회의를 진행하고, 주보 및 모든 공문서는 한글과 영어를 병기하고 있다. 주일 예배는 영어·화란어·

불어로 동시통역하며, 성경 봉독은 최소한 다섯 언어(영어·화란어·불어·러시아어·한글)로 한다. 최근에는 교회에 벨기에 가족을 비롯해 인도에서 온 평신도 사역자, 이태리에서 온 자매, 태국인 가정, 알바니아 난민 가정, 이라크 난민 여성, 고려인 등 다양한 교인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Baker에서 출판한 <A Many Colored Kingdom>을 추천한다.

### 한인 교회의 계통화를 극복하는 것이 곧 대안이란 말인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최대 약점 중의 하나가 ‘고립된 교회’(ghetto-church)라는 점이다. 이런 점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한인 교회들이 계통화되지 않으려면 현지 교회들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우리 교회의 경우 벨기에 개신교단에 자매 교회로 가입해 다양한 사역을 함께 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미국 교회 성도들과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또 이곳에 있는 일본 교회 성도들과도 교제하며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또 다른 한인 교회들과는 부활주일에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다른 한인회 행사 및 연합 집회에 서로 아름답게 협력하고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미국에서 국제 교회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이렇게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할 것이다.



웰른한빛교회에서 독일·중국·한국인 교인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

웰른한빛교회는 교회 이름 중 '한인'이라는 명칭을 삭제해 더 이상 한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민족의 경계를 넘어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 ACMK Speech<sup>1</sup>

I have been working at Hanbit community church in Cologne since 1999. German is my fourth foreign language. Korean is my mother tongue. English is my second foreign language. I have learned it since middle school. Dutch is my third foreign language since 1989. Then German is as my fourth one since I moved from Amsterdam to Cologne in 1999.

After gradua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finishing military service for two and half years, I have left Korea in 1986 to study a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in Philadelphia, U.S.A. Since then I have lived abroad: Holland in 1989-1998 to study and write my dissertation and Germany since 1999 to serve Hanbit church. It means that I have lived in Korea for 25 years and in other countries for 18 years. Therefore, I have not had big cultural shocks in Germany.

I have rather been so glad that our church could cooperate with other German churches. Nevertheless, each country has its own characteristics and so I sometimes do not understand some points while living here as Korean pastor.

The most peculiar phenomenon that I would like to mention is that there is so many 'paper Christians' in Germany. I have heard that there are about 25 million protestant Christians here but not so many attend worship service. They pay church taxes but they do not come to the church. It is really strange to me. Why is that so? Why are Christians here so reluctant to come and worship the Lord? There is of course Christian culture here. There are still many Christian organizations. Their ministries are still so precious. But it seems that German churches are gradually losing their influence.

I wonder whether German Christian leaders really feel serious responsibility for this critical situation. Some leaders commit themselves to do something. I believe of course that God preserves His remnants here. But still some pastors I have met are too passive to tackle this spiritual crisis. Even though there are massive evangelistic rally such as ProChrist, I do not see any serious personal evangelism in local churches. Church which does not do the ministry of evangelism cannot be healthy.

Traditionally, Germany has been a Christian country. Christianity has been folk religion. But nowadays, we have to admit frankly that in reality most young people have left church. Even though I know one German church which attracts young people by its music ministry, I wonder whether the German church in general has a clear vision for the next generation. I want to point out that this is the really spiritual shock to me if I have to mention a shock.

---

<sup>1</sup>본고는 2004년 9월 18일 독일의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 주에 있는 외국인교회 연합회에서 나눈 것입니다.  
ACMK는 Arbeitsgemeinschaft der Christlichen Migrationskirche in Nordrhein Westfalen의 약자입니다.

Not only young people but also 95% Christians who are not attending worship service should be our target group. When I was invited to a German church synod, I once asked one German pastor, "What is your strategy to awaken the sleeping 95% Christians in Germany?" She answered, "I'm afraid that we do not have any. It might be foreign church like yours which can do this job." I was amazed.

Our church has an early morning-prayer meeting. Every morning from Tuesday to Saturday we gather together at St. Anna church in Koeln-Riehl at 6:00. (Sundays and Mondays we pray individually.) In this prayer time, I always make an intercessory prayer for the revival of German churches. I pray that God might raise another Martin Luther to awaken the German Christians to be the witnesses of the gospel. I pray that God raise another spiritual leader like Nehemiah here in Germany who can commit themselves to restore and reclaim the 95% Christians who does not come to worship the Lord.

Secondly, I think that the German church is quite closed to foreign visitors. German church is mostly for Germans, not for Chinese or African Christians. When a foreigner visits a German church service, for instance, it is usual that few people say a warm welcoming word to him or her. It might be German culture which respects individual's privacy but who would like to visit that 'cold' church once again?

The German church system as such is very well organized and consistent. However, it seems to have little flexibility to accept non-German churches. For instance, our church has applied for an associated membership to German church. It takes so long time, much more because they have to change the concerned church regulations. But anyway, I am glad that German church is now gradually recognizing non-German churches as partners.

I think that German church system might need some change. It might have a paradigm shift. The context of contemporary German society has been radically changed but the church seems to remain the same. The young people, for instance, want to sing modern gospel songs but they have to sing old hymns with pipe organs at the service. The essence of the worship remains the same, to lift up God's name and to glorify Him but the way and method can be and should be relevant to the people in their cultural context. I see nowadays that many German churches try to be changed, however. For instance, so many church leaders take part in Willowcreek congress in Germany.

Thirdly, the church tax system is quite strange to me. In Korea or U.S.A, most churches are financially supported by local congregations. But in German churches especially major state churches (Landeskirche), their main income is church tax. It might have good reasons to have had this tax system and it might have been functioning well in the past when most Christians took it for granted to attend the worship service every Sunday. But now the situation has been drastically changed. I even sometimes wonder how many

local churches can be financially independent and self-sufficient if there is no church tax system. I wonder how many German Christians exercise their stewardship by offering their tithe to God.

In connection with this issue, I have to mention our church situation. We have about 250 adult membership and about 200 members are attending regularly at Sunday service. About 65% of our adults have paid church tax and it is about 18,000 Euro for more than 20 years. If all the adults pay it, it would be about 30,000 Euro. However, we have not received any financial support from German state church except about 1,500 Euro as subsidy per year. In addition, we have paid rent to our German partner church every month. I think it is not fair. This again shows the closed character of the German church system. It has not considered other non-German fellow Christians.

The main purpose to mention the above points is not to criticize anybody. Rather it is out of my sincere hope that I can make some contribution to the revival of German churches. We are one in Christ. We are brothers and sisters in God's love. May the Holy Spirit work among us that we might understand one another much more and help one another so that God's Kingdom might be expanded in Germany and in Europe.



ACMK (Arbeitsgemeinschaft der Christliche Migrationskirche in Nordrhein Westfalen) 임원회

## 한일 연합 예배를 마치고<sup>1</sup>

지난 2003년 9월 21일 주일에 드린 한일 연합 예배는 퀼른한빛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또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1999년 6월 6일 퀼른 지역의 네 한인교회들을 하나로 통합하신 주님께서는 올해 초에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NRW)주에도 한인교회들 간에 교단을 초월한 협의회를 구성하게 하셨고, 지난 5월말에는 독일 게제케(Geseke)서 유럽의 한인교회들이 교파의 벽을 허물고 함께 신앙 축제를 하게 하시더니, 베를린에서 열린 교회의 날(Kirchentag)에선 개신교와 카톨릭 성도들도 함께 모이게 하셨으며, 지난 7월말에는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의 외국인 교회들이 연합하여 법인체를 만들도록 인도하시더니 이제 한일연합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한국 민족과 일본 민족이 진정 주님 안에서 화해될 수 있다는 진리를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주시는 주님의 비전은 역시 ‘하나됨의 회복’입니다. 지난 2003년 5월경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한일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퀼른 외국인교회 협의회에서 친분을 쌓은 일본교회 오구리(Oguri) 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후 주제와 날짜를 결정하고 예배 순서, 성찬 및 설교 등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7월의 한 주일에는 제가 예배 후 일본 교회에 찾아가서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기도 했고 이메일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구리 목사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한 일본인으로서 과거 일본이 지은 모든 범죄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는 말씀에 연세 드신 성도님들께서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고 우리 안에 맺힌 응어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귀한 은혜를 느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 회개할 때 참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함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설교 후 함께 부른 찬송 272 장 ‘인류는 하나되게’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지 않았던 찬송이지만 놀랍게도 일본 찬송가에 정식으로 들어있는 찬송으로 한국인이 작곡(나인용) 작사(홍현설)한 찬송이어서 더욱 의미심장했습니다. 또한 함께 성찬을 나누며 우리는 이제 주님의 한 형제 자매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교회도 자체 현금이 교회 운영의 큰 봇을 차지하기에 처음에는 현금을 분리하여 거두려 했지만 나중에 일본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 드리겠다고 제안했을 때 또 한번 성령의 교통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께서도 추수감사절이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

<sup>1</sup>본고는 2004년말 퀼른한빛교회의 계간지인 ‘한빛’지에 기고한 글을 다듬은 것입니다.

불구하고 다시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해주셔서 예배 후의 교제가 더욱 아름답도록 빛내주신 귀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물질도 나누게 하신 것 또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이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오는 10월 12일 화란의 오픈도어스 선교회를 섬기시는 피터 형제님과 에스더 자매님을 통해 북한 선교의 비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11월 1일에는 화란 전국에서 모인 성도님들이 오픈도어스 날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석방되었고 탈북에 성공한 후 북한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북한 동포들의 참상을 폭로하고 있는 이순우 여사의 간증이 있게 됩니다. 또한 바로 그 자리에 한빛찬양대가 찬양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또 하나의 비전, 즉 남과 북이 화해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이 일도 이루실 줄 믿으며.



한일연합예배 찬양대



한일연합예배 성찬식



한일연합예배 후 나눈 교제

## 독일 라인란드 개신교회 총회를 다녀와서<sup>1</sup>

저는 지난 2002년 1월 8일(화) 받 노이어나르(Bad Neuenahr)에서 개최된 독일의 라인란드 개신교회 총회 (Evangelische Kirche im Rheinland Landessynode)에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된 그 자리에는 독일 라인란드 교회의 총대(총회 대표) 약 400 명이 모였고 각 신문기자 등 언론기관과 총회 산하 여러 기관들이 참가하여 각종 전시회도 함께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이 총회는 라인란드 개신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국가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모임입니다. 당시 총회장은 독일 개신교 협의회(EKD: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회장인 M. Kok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만큼 독일교회 전체에서 라인란드 교회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는 한번도 외국인 교회 대표가 이 총회에 초청된 적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인란드 개신교회 역사에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큼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비로소 라인란드 개신교회가 공식적으로 외국인 교회들에 대해 눈이 떠졌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이미 있었는데 그동안 낡은 가죽부대만 고집하다가 이제 비로소 새 부대로 바뀐 느낌이 들었습니다.

총회의 주제는 ‘Kirche in der City(도시내의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이미 1993년부터 거론되어 왔는데 이 논의의 핵심은 도심의 교회들이 회원들을 잃어 점점 텅텅 비어지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활로를 모색해왔고, 이와 동시에 도심에 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중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대 도시 문화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추어 도심의 교회들도 변신을 시도하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도심의 교회당 부속실에 카페를 만들어 쇼핑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나 들러 차를 마시며 쉴 수 있고 예배당으로 들어가 기도, 명상 등을 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오버하우젠(Oberhausen)에는 실제로 쇼핑몰 교회(Shoppingmall church)가 등장했다고 하며 병원과 교회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주제가 기존의 독일 교회 행정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독일 교회는 라인란드의 경우, 총회(Landessynode) 산하 각 도시별로 교회협의회(stadtkirchenverband)가 있고 그 아래 지역별로 교구(Kirchen kreis)가 있으며 각 교구 산하에 구역별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도심의 교회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퀼른 인근의 다양한 지역에서 오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기존의 교회 행정 시스템이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

<sup>1</sup>본고는 원래 한빛지 원고(2002년 봄호): 비전나눔을 위해 작성한 것을 다듬은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회의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 그 개정을 위한 토론이 이번 총회의 주된 논점이었고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에 헌법이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 독일 라인란드 교회의 이러한 변화는 현대 독일 사회 상황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교회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오전의 회의 중, 저희 외국인 교회 대표들(아프리카 교회들, 인도 교회, 핀란드 교회, 헝가리 교회, 웰른한빛교회 및 기타 두 한인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소개되었고 따뜻한 박수로 환영을 받았으며, 점심 식사 직전에 우리 대표들이 모인 곳에 총회장, 테스너(Technner) 목사님(웰른 Missionale 대표), 그리고 라인란드 교회 주요 인사들과 여러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친절과, 격려는 우리의 마음을 흡족한 기쁨으로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별도의 예약된 좌석에 외국인 교회를 담당하는 독일 라인란드 교회 임원들이 배석하였고 금번 총회에 외국인 교회들이 인정받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현한 클라우디아 베리쉬-옵라우(Claudia Waehrish-Oblau) 목사님이 동석하였습니다. 클라우디아 목사님께서는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영어로 통역하는 수고도 해 주셨고, 어떤 질문에도 인내와 친절로 답변하는 자상함을 보여 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총회는 사실 클라우디아 목사님이 1998년부터 VEM(연합복음선교회 Vereinte Evangelische Mission)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Kooperation zwischen deutsch-und fremdsprachigen Gemeinden(독일교회와 외국인 교회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국인 교회에 대해 너무 무관심해왔던 라인란드 교회들을 일깨운 열매가 드디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2001년 말 현재 웰른한빛교회를 포함한 83개의 외국인 교회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교회들은 독일교회와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음이 총회 신문에 공식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한빛’지 겨울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란에서는 이미 화란내 외국인 교회들이 10년 전에 조직(스킨 SKIN: Samen Kerken in Nederland)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라인란드 외국인 교회들도 이 스킨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서서히 조직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독일 교회 담당자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성도들은 전체의 10%만 적극적으로 교회에도 참석하며 활동적이고 나머지는 너무 무관심하게 있다가 팬히 아프리카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럽다고 불평하여 그들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클라우디아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나머지 90%의 독일 크리스챤을 깨울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클라우디아 목사님은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고 운을 뗀 뒤, 잠시 생각한 후에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이 말은 저에게 매우 신선한 충격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국인 교회들을 부흥시키시는 것은 바로 이 잠자는 90%의 독일 크리스챤을 깨우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 제 4 부 유럽 연합의 중심 벨기에

## 브뤼셀 유럽 연합 국회 의사당이 주는 교훈

제가 벨기에에서 사역한 지 얼마되지 않은 2006년 가을, 유럽연합 국회의사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공식적인 유럽연합 국회의사당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한 달에 일주일 정도만 전체회의가 열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회의들은 이곳 브뤼셀에 신축된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됩니다.

27개국의 4억 9천 2백만 인구를 대변하는 785명의 국회 의원들이 모여 유럽연합의 중요한 입법 결정을 하는 국회 의사당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에서 근무하던 한 자매님의 안내를 받아 각종 대소 회의실과 국회의원 집무실 그리고 총회의장을 둘러보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곳은 역시 총회의장이었습니다.

전체 의원들의 좌석마다 언어를 선택할 수 있었고 회의장 2층 부분은 돌아가면서 25개의 언어로 통역할 수 있는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의 공식언어는 23개이며 홈페이지(<http://www.europarl.europa.eu/>)에만 들어가도 22개의 언어로 엑세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당 입구에도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으며, 총회의장에도 각 나라 국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총회의장 입구에서 전체를 한 눈에 바라보면서 잠시 목상에 잠겼습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Unity in diversity)를 추구하는 유럽연합의 비전, 1950년 5월 9일,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버트 슈만(Robert Schuman)이 제안했던 꿈같은 청사진이 이제는 어엿한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도 이렇게 그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어와 민족 그리고 문화가 매우 다양한 여러 나라들이 수많은 협의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 지금의 유럽연합 공동체를 탄생시켰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정부가 있는 지하철역도 Schuman 역으로 명명되었고 슈만 선언(Schuman Declaration)이 발표된 5월 9일은 유럽의 날(Europe Day)로 지켜집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국회에서 특별히 저의 관심을 끈 것은 여러 나라 국기들과 함께 각 나라 언어들이 공평하게 존중되는 소위 ‘다언어평등주의(multilingualism)’였습니다. 이 23개 언어를 다른 각 나라 언어로 통, 번역하기 위해서는 모두 506회의 경우의 수( $22 \times 23 = 506$ )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국회는 매우 수준높은 통,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엄격한 규정에 의해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번역사만 700명, 프리랜서 통역사는 2500명 그리고 170명의 법률-언어 전문가가 모든 문서들을 작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은 지금도 한 걸음씩 전진하면서 유럽의 진정한 평화와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도 이러한 마인드를 좀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로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제 결혼하신 가정과 그 자녀들, 입양아들, 조선족 및 고려인들 그리고 탈북자들까지는 최소한 우리 교회 사역의 일차 대상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주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진 글로벌 킹덤 비전(Global Kingdom Vision)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모든 열방들이 하나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전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7:9-10에서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저는 유럽연합의 국회 의사당에서 바로 그와 같은 비전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비전을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킹덤 비전(Kingdom Vision)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뤼셀에 있는 유럽 국회의사당 전면



브뤼셀 유럽 국회의사당 본회의실

## 유럽 한인교회 협의회(가칭) 창설을 제안합니다.<sup>1</sup>

하나님께서 한인들을 세계로 흘으시면서 유럽에도 적지 않은 한인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40여년 전부터 이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도 유럽 각지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륙이나 지역에 비해 인구는 적은 편이지만 나름대로 현지에 뿌리를 내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봅니다.

또한 일세대가 지나가면서 2세들이 등장해 옴과 동시에 유럽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도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세와 2세들을 연결하고 한인 교회와 유럽의 현지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기 위한 노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유학생들과 청년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한 코스테, 코스타 운동이 지속되어 오면서 젊은이들을 네트워킹하는 귀한 사역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 운동이 동시에 유럽의 목회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 역할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유럽 목회자 연수원(EMI) 모임을 통해 한국, 미국 그리고 유럽의 목회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동역해 왔습니다. 나아가 유럽에 흘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2003년 독일 Geseke에서 KCTE (Korean Church Together in Europe)이라는 모임으로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후속 모임이 발전적으로 계승되지 못해 연합 활동이 다시금 약화된 듯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한국 및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분열로 인해 주님의 기도 (요 17:21-23)에 역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도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 교단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나누어짐으로 오히려 전도의 문을 닫아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각 교단이나 교파별로는 유럽 전체 조직이 있으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유럽 한인교회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는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유럽 전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아우를 수 있는 협의회를 창설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 목적은 유럽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상호 이해 증진 및 협력을 통해 주님의 한 몸임을 확인하고 회복하며 유럽의 다른 교회 협의체들과의 동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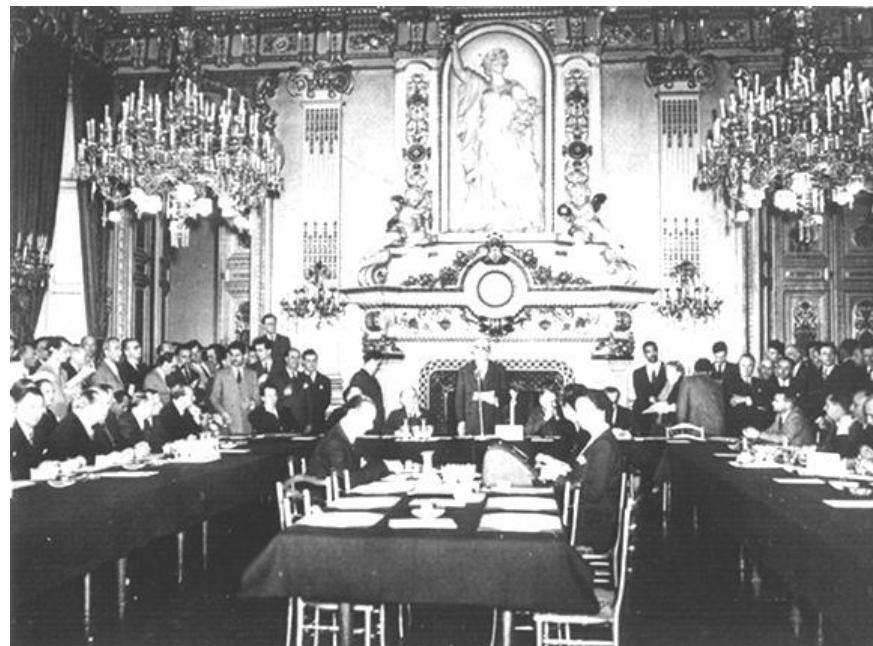
---

<sup>1</sup>본고는 크리스찬투데이 유럽판 2008년 2월 7일에 기고한 것을 다시 다듬은 것입니다.

조직은 유럽 내 각 대표적인 교단에서 파송한 대표 2명(목사 1명, 평신도 대표 1명)으로 구성하되 자세한 내용은 서로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모임은 우선 창립 총회를 적절한 장소에서 개최한 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시공간을 넘어 정보를 교환하며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프랑스의 외무장관이었던 슈만이 유럽 연합의 비전을 제시한 후 현재 유럽은 전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통합되어 계속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에 이러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연합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분열이 심각한 다른 대륙의 한인 교회들에게도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한국 교회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 협의회로 양분된 상황을 극복하여 명실상부한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아직도 이데올로기로 양분된 한반도 한민족의 하나됨을 회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적, 정신적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졸저 ‘하나됨의 비전’(서울: IVP, 2006)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셨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으며 그 후 유럽 연합의 수도 브뤼셀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러한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총(요 11:52)이 유럽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950년 5월 9일 로버트 슈만이 슈만 선언(Schuman Declaration)을 발표하는 모습

## 유럽으로 오는 탈북 동포들

최근 몇 년간 탈북 동포들이 여러 경로를 거쳐 유럽 연합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여 이미 난민 지위를 확보한 후 언어교육과 함께 직장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럽지만 신중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에도 적지 않은 탈북 동포들이 있으며 상당수 현지의 한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왔지만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며 지혜롭게 섬김으로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사역하는 벨기에에도 탈북 동포들이 있습니다. 유럽 연합 국가들이 이들에 대해 조사는 철저히 하지만 난민 지위를 부여한 이후 적법하게 난민으로 인정된 분들에게는 모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탈북 동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병원에 입원한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다른 집사님들도 있었는데 우연히 한 여집사님이 그 병원에 한국 아이같은 여자 아이가 있어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북한에서 왔으며 아빠가 폐결핵이 심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치료 중인 아빠를 접촉할 수 없어 교회 정보만 주고 헤어졌는데 거의 반년이 지난 후 이 분이 딸과 함께 어느 주일 오후에 갑자기 교회를 방문해 온 것입니다.

이 분은 당시 남부 국경 지역에서 벨기에 정부가 운영하는 난민 수용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기차를 몇 번 갈아타고 물어 물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바로 그 때 그 병원에서 만났던 분인 것을 알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뻐하였고 환영하였습니다. 이 분은 탈북한 후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유럽으로 오셔서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회복되어 교회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직접 그 수용시설까지 모셔다 드리고 성경을 선물로 드린 후 기도하고 위로하였으며 얼마 후 이 부녀는 난민 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여 현재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믿음도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형제 한 분이 왔는데 이 분도 결국 난민 지위를 받아 정부 지원을 받다가 최근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멋떳이 열심히 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얼마 전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정이 나오게 되셨는데 이 분들의 사연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형제님은 일찍 탈북하여 만주 지역에서 일하며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 북한의 가족들에게 전달하려 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북한 보위부에 넘겨졌고 거기서 가진 모든 것을 압수당했으며 무시무시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한 평 남짓한 감방에 수십 명의 탈북자들이 다시 체포되어 누워서 잘 수도 없는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하여 다시 압록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너무 약해져서 결국 수영을 하다가 의식을 잃게 되어 강물에 정처없이 떠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와 주셔서 중국쪽 강가로 밀려 갔고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정신을 차려 다시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제일 먼저 국경 근처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 찾아가 도움을 청하여 과거에 일하던 곳으로 갈 수 있었고 거기서 나중에 다시 다른 도시로 이동하여 신앙이 좋은 조선족 동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부인인 탈북 여성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자매님의 사연 또한 기구했습니다. 이 분도 탈북하다 잡혀 감옥에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죄수들이 죽으면 간수들이 더 골치 아프므로 강제 퇴소시켰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재탈북에 성공하였으며 마침내 이 형제님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작년 초 중국 정부가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면서 살벌한 검문검색이 강화되자 이 부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었고 다행히 식당 주인의 도움으로 유럽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난민 수용소에 계시다 최근 난민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 분도 앞의 탈북 동포처럼 폐결핵이 심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금은 부인 사이에 예쁜 딸도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 성도들께서 정성을 다해 섬기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감사의 간증문을 교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탈북 동포들은 이제 함께 신앙 생활하시면서 평일에는 언어도 배우며 밝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분들을 섬기며 이제 북한 사역은 단지 북한 내에서나 국경 접근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과 전세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섬겨야 할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주님께서 이 분들을 통해 더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 피묻은 성경 (The Bible in blood)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당연시 하지만 500년 전만 해도 이것은 꿈도 꿀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에는 4세기에 제롬(Jerome)에 의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 사용되어 성직자들과 일부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마틴 루터와 같이 영국의 위대한 종교개혁가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 c.1495-1536)도 모든 평신도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42세의 젊은 나이에 벨기에의 빌보드(Vilvoorde)에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벨기에에서 사역하는 저는 틴데일이 빌보드에서 순교한 사실을 발견하고 더욱 그의 생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틴데일은 영국의 명문인 맥델런,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했습니다. 그는 외국어 실력이 탁월하여 모국어인 영어 외에 불어, 독일어, 이태리어, 라틴어, 스페인어 그리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여 원어 성경을 읽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일반 성도들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 국왕인 헨리 8세는 이것을 금지하였고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도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틴데일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쟁기를 가는 소년이 당신들보다 더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If God spare my life, ere many years, I will cause a boy that driveth the plow to know more of the Scriptures than thou dost.)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틴데일은 루터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개신교에 관용적이던 독일의 함부르크와 비텐베르크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영국 가톨릭 주교들은 그곳까지 첩자들을 파송하여 그의 성경 번역과 출판을 계속 방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틴데일은 이에 굴하지 않고 루터의 도움을 받아 계속 번역한 후 다시 퀼른으로 옮겨 최초의 영문판 신약성경 번역을 완성하여 마침내 1525년에 출판합니다.

그러나 한 인쇄공이 이것을 밀고하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틴데일은 다시 보름스(Worms)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다시 영문 신약성경 3천부를 출판하여 비밀리에 영국으로 반입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성경들 중 발각된 것은 즉시 불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성경이 계속 반입되어 나중에는 관리들도 그것을 막을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때 인쇄된 것은 모두 18,000부였으며 그중 2부가 대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후 틴데일은 1529년부터 벨기에의 항구도시인 안트베르펜으로 이주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1534년 신약성경 개정 번역판을 냈으며, 이어 구약성경 번역에도 착수하여 2년 후 모세오경과

요나서가 출판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역대하를 번역했을 때, 그의 친구였으나, 실제로는 스파이였던 헨리 필립스에 의해 배신당해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브뤼셀 근처 빌보드 성에 있던 감옥에 투옥됩니다. 당시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탈옥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환경이 열악한 감옥에서도 그의 의연하고 고매한 인격에 감동을 받아 간수들이 그를 존경하여 개신교인이 될 정도였습니다. 투옥된 지 2년이 되던 1536년 10월 6일, 틴데일은 이단으로 몰려 화형을 당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기도한 후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틴데일을 깊이 연구한 한 학자는 그가 번역한 성경을 '순교의 피가 묻은 성경'이라고 부르며 그는 '영어 성경의 아버지(Father of the English Bible)'라고 불립니다.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은 원어 성경을 대본으로 사용한 최초의 인쇄된 영어 성경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틴데일이 헬라어 원전 신약 성경을 영역한 것은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출판한 지 불과 9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당시 영어에 없던 새로운 단어들(가령 Passover, atonement, scapegoat, Jehovah 등)을 만들어 내었고 구어적이고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영문으로 영어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의 공헌은 윌리엄 셰익스피어보다 더 크다고까지 말합니다.

그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가 화형대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 또한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었습니다. 그를 화형에 처한 헨리 8세는 3년 후 틴데일 성경을 기초로 소위 "Great Bible"을 출판하였으며 그 후 스튜어트 가문의 초대 왕인 제임스 1세는 틴데일이 죽은 지 75년만인 1611년에 그의 성경을 90%나 사용한 '킹 제임스 성경'(흠정역)을 발행한 것입니다.

그를 기념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학과 신학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틴데일 하우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틴데일 대학교 및 신학대학원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 있는 틴데일 신학대학원이 유명하며 유럽에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근교 밭후버도르프(Badhoevedorp)에 있는 틴데일 신학대학원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순교한 벨기에의 빌보드에는 그를 기념하는 교회와 공원 그리고 박물관도 건립되었습니다. 진정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성경을 우리는 더욱 귀히 여기며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윌리엄 틴데일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



순교당하는 틴데일

## 피묻은 신앙고백

2009년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탄생한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기념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식 홈페이지([www.calvin09.org](http://www.calvin09.org))를 보면, 칼빈이 태어난 프랑스와 그가 활동한 스위스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헝가리 그리고 나아가 러시아와 한국, 일본에까지 기념 행사들이 개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벨기에는 개신교회 역사상 가장 최초의 신앙고백서가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벨직 신앙고백서(Belgic Confession, 불어로는 La Confession de Foi des églises réformées Wallonnes et Flamandes)입니다. 원래 불어로 기록된 이 신앙고백서는 기도 드 브레스(Guide de Bräls)라는 분이 1561년에 작성한 것인데 이 고백서는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이 고백서는 나중에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신앙고백서인 돌트 신경,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도 드 브레스는 1522년 벨기에의 남부 도시인 몽스(Mons, 화란어로는 Bergen)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유리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기에 기도도 자연스럽게 그 기술을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도도 루터의 책을 읽으며 개혁신앙이 자라게 되었는데 그가 14세였을 때 영국 출신인 윌리엄 틴데일(W. Tyndale)이 벨기에에서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 친구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브뤼셀 근교의 빌보드(Vilvoorde)성에서 순교당한 사건을 들게 됩니다.

그 후 기도는 런던 동부에 가서 그곳에 신앙적 이유로 피난 온 성도들의 세운 교회에서 섬기면서 당시 유명한 종교개혁자요 설교자였던 아 라스코(a Lasco)와 마틴 부서(Martin Bucer)에게 배웠습니다. 30세가 되어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릴(Lille)에서 개신교회를 섬기다가 다시 젠트(Ghent)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개혁신앙을 일깨우는 작은 책자도 출판합니다.

그 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칼빈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제네바로 초청을 받아 3년간 칼빈과 베자에게서 개혁신학과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캐더린 라몬과 결혼하여 자녀들도 축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필립 2세가 더욱 개신교도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고 기도는 가족들과 함께 비밀리에 고향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릴, 안트워프 그리고 몽스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 중심지는 투르네(Tournai, 화란어는 Doornik)였습니다. 그의 전임 사역자들은 발각되어 화형에 처해 죽고 기도도 ‘제롬’이라는 익명으로 비밀리에 여러 가정을 돌아가며 예배를 드렸는데 한 모임에 12명이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1566년에 기도는 프랑스 북부인 발렌시엔느(Valenciennes)에서 목회를 하다가 일부 과격한 성도들이 성당의 기물들을 파괴하여 결국 군대가 동원되어 기도는 체포되어 1567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깜깜하고 추우며 쥐들이 들끓는 지하 감옥에서 그가 아내에게 쓴 감동적인 편지가 남아 있어 아래에 소개해 드립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의 슬픔과 고뇌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당신에게 씁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부탁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 몇 년이나 같이 지낼지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7년이나 함께 지내도록 은혜베풀셨지요.  
주님께서 우리가 더 오래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셨을 것이오.  
그러나 그것을 주님 기뻐하지 않으셨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이다...  
더구나 내가 적들의 손에 빠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은 더욱 기쁘고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나의 동반자여, 바라건데 나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감사합시다. 그 분은 언제나 선하고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당신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시오.  
주님은 과부의 남편이시며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당신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안녕, 캐더린,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시어 그 분의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신실한 남편, 기도 드 브레스.

기도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신앙 고백서는 당시 극심한 카톨릭의 박해에 대해 필립 2세에게 개신교 신앙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으로서의 책임은 다하겠습니다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등에 채찍을 받고, 혀를 짧리며, 입에 재갈이 물리며, 온몸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도 각오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벨직 신경은 기도 드 브레스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신앙을 이어 받은 우리 한국 교회도 계속해서 바른 신앙을 계승하여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기도 드 브레스 (오른쪽)

## 다중 언어 사회의 장단점

제가 살고 있는 벨기에는 인구 천 만명의 비교적 소국입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치고는 상당히 복잡한 나라입니다. 우선 공식 언어가 세 개입니다. 북부 플랑드르 지역에서 사용되며 플레미시(Flemish 또는 Vlaams)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어와 남부 및 수도인 브뤼셀에서 많이 사용되는 불어 그리고 2차 대전 후 독일에서 벨기에 영토로 귀속된 동부 지역 일부에서 사용되는 독일어입니다. 여기에다 유럽 연합 본부와 나토 사령부가 브뤼셀에 있어 영어 또한 널리 사용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국명도 네덜란드어로는 Koninkrijk België, 불어로는 Royaume de Belgique 그리고 독일어로는 Königreich Belgien 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Kingdom of Belgium입니다. 수도인 브뤼셀도 쓰는 방법이 달라 네덜란드어로는 Brussel, 불어로는 Bruxelles, 독일어로는 Brüssel 그리고 영어로는 Brussels 입니다. 도시 이름도 불어와 네덜란드어가 서로 달라 교통 표지판이 헷갈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가면 보통 위의 네 가지 언어로 안내문이 적혀 있으며 구좌를 개설할 때에도 이 네 가지 언어 중 자신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경우 대부분 네덜란드어와 불어 중 택일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남북 언어권의 경계이므로 이 쪽 수퍼마켓에 가면 네덜란드어를 사용하지만 길하나 건너 다른 쪽 수퍼에 가면 불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상당히 당혹스러웠지만 지금은 조금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낯선 벨기에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아시아 사람인 저에게 말하는 것은 ‘Hello’같은 인사가 아니라 ‘English? French? Flemish?’입니다. 즉 무슨 말을 할 줄 아느냐는 것이지요. 그만큼 벨기에 사람들은 다중 언어에 익숙한 민족입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벨기에에는 구멍가게 아저씨도 4 개 국어를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한 한국 형제가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한 후 벨기에에서 최종 과정을 마치기 위해 유학을 왔습니다. 하루는 신문을 사려고 동네 구멍가게에 갔는데 막상 말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니까 가게 아저씨가 할 수 있는 언어로 하라고 말해서 결국 독일어로 신문을 사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럽에서는 벨기에와 스위스가 이런 다중 언어 국가가 될 것입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작은 나라이면서도 선진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위스는 공식언어가 불어, 독일어, 이태리어 그리고 로만슈라는 라틴계 언어까지 4 개 국어입니다. 물론 이곳도 영어는 쉽게 통용되지요. 따라서 두 나라에 국제적인 기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작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저는 이것이 다중 언어사회가 주는 유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의 언어만 사용되는 사회나 국가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겠지만 그 언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언어일 경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중 언어권에 사는 경우, 세계를 보는 관점이 넓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란 결국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창과 같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으로만 보는 것보다 여러 각도에서 다른 창으로 세상을 볼 경우 훨씬 더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며 따라서 사고의 유연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언어권이 다름으로 인해 벨기에의 경우처럼 불어권과 네덜란드어권간에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언어권의 차이로 인해 벨기에는 국가적 결속력이 다른 나라보다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국가간 축구시합을 해도 벨기에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또는 한국처럼 단합되어 응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 언어 사회는 궁극적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베네룩스 지역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언어에 이미 귀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만해도 네덜란드어, 불어,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등 유럽의 주요 언어를 들으며 위성 방송을 통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언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더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세계관이 넓어진다는 것이며 사고의 폭이 확장되므로 보다 다양하고 창의로운 생각이 가능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사회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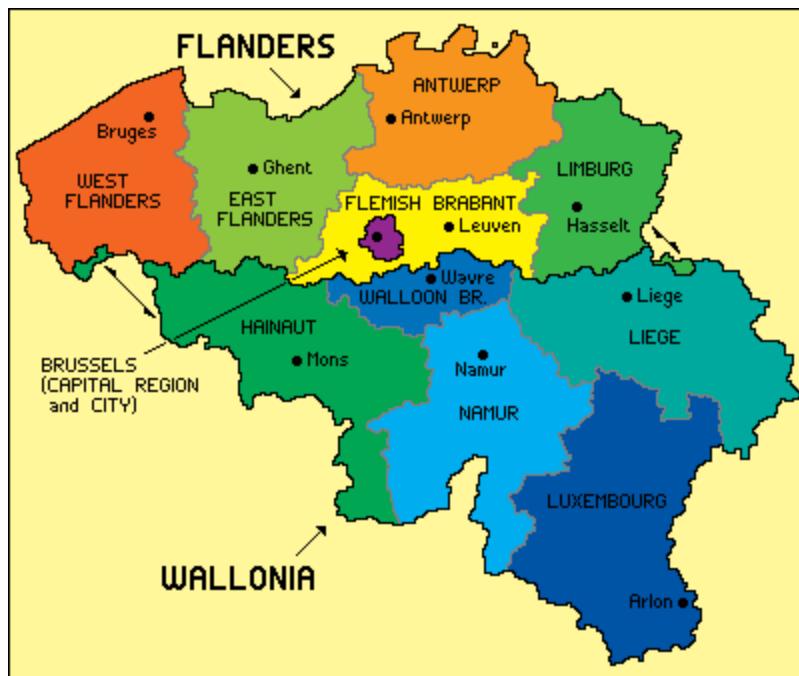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한달에 한번은 예배 시간에 다국어로 성경을 봉독합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 나라 성도들과 2세들의 다양한 언어권을 반영하여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언어로 같은 본문을 여러 언어로 봉독하는 것입니다. 보통 네덜란드어, 불어, 영어, 한국어 기타 러시아어, 독어, 일어, 중국어 등의 언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에게도 예배에 대한 참여 의식을 높이며 그들도 소중한 지체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요즈음 한국에도 영어 외에 일본어와 중국어가 더빙없이 그대로 케이블 TV에 한글 자막과 함께 나오고, 지하철 등 공공 교통 안내 방송도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음을 보면서 국제 경쟁력이 한층 제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중 언어 사회가 된다고 해서 한글이 약화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중 언어 사회 속에서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더욱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네덜란드어나 불어에는 경음(硬音)이 강하고 격음(激音)은 거의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영어나 독어는 격음이 강한 반면 경음은 잘 발음이 안됩니다. 그러나 한글은 둘다 발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Korea)을 말할 때 네덜란드 사람은 ‘꼬레아’라고 발음하고

불어로도 ‘꼬레’라고 하지만 ‘코레아’나 ‘코레’라고는 발음이 잘 안됩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코리어’, 독일 사람들은 ‘코레아’라고 하지 ‘꼬리어’나 ‘꼬레아’는 발음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자라나는 이세들은 한국어와 현지어를 동시에 구사하며 현지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영어 및/또는 다른 언어를 구사할 경우 이들은 동서양의 주요 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세계를 아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느 언어라도 하나는 확실하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어, 자아정체성이 혼돈스러워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회당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는 히브리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고(행 22:2),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의 철학과 아레오바고 그리고 그들이 구사하는 헬라어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가장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전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벨기에 지도

북부 플랜더스는 네덜란드어, 남부 왈로니아는 불어 그리고 동부 끝은 독일어를 사용한다.

## 워털루 전쟁의 교훈

벨기에는 유럽 강대국들 사이에 끼여 있기 때문에 각종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 19 세기에 가장 유명한 전쟁은 워털루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1815년 6월 18일,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웰링턴, 블뤼허가 이끄는 영국, 네델란드 및 프로이센 연합군에 패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나폴레옹 최후의 전쟁이며 여기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2 번째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 세인트 헬레나섬으로 유배되어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전쟁 이후 영어에는 이런 관용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He has faced his own Waterloo.* 즉 ‘그는 최후를 맞았다’는 뜻입니다. 워털루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남동쪽으로 약 12 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그 동네 이름이 워털루입니다.

나폴레옹은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한 후, 폐위되어 엘바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빙회의에서 전후처리 문제로 연합군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 엘바섬을 탈출해 7천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파리에 입성합니다. 제국의 부활을 선언하고 동맹국에게 공존을 주장했으나 나폴레옹의 복귀 소식은 유럽을 다시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고, 나아가 프랑스 제국의 해체로 인해 생기는 영토와 이득을 욕심낸 연합국은 일치단결하여 프랑스를 향해 진격해 왔습니다.

당시 프랑스 군대는 7만 2천명에 250개 대포를 보유한 백전노장의 군인들인 반면 웰링턴 장군의 연합군은 6만 8천, 블뤼허 장군의 프로이센군은 4만 5천으로 전체 11만 3천명의 병력에 150개의 대포를 보유했지만 사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연합군을 단숨에 해치울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당시 프랑스군은 전체 병력수는 연합군에 크게 뒤지지만 각각 나눠싸우면 승산이 있어 나폴레옹은 신속한 각개격파 작전으로 승리한다는 전략을 세웁니다.

우선 나폴레옹은 네이 원수에게 2만 4천명을 맡겨 웰링턴군과 카트르 브라에서 전투를 벌이게 하고 자신은 리니에서 프로이센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합니다. 웰링턴은 블뤼허가 후퇴했기 때문에 자신의 군대도 일단 후퇴시켰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프로이센군이 완전히 후퇴한 것으로 착각하여 다음날 아침 그루시 원수에게 3만명의 별동대로 프로이센군을 추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나폴레옹이 패전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루시는 결단력이 부족해 추격을 계속했으나, 그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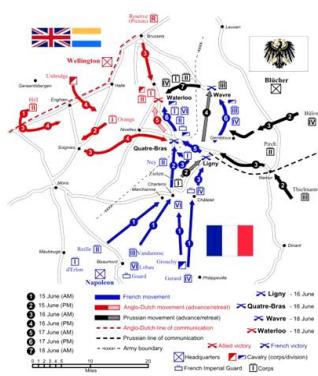
웰링턴군은 몽-셀-장에 구축한 방어 진지에 도착한 후 수비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웰링턴군 정면에 포진하여 보병 사단을 전면에, 기병 여단을 그 후방 양익에 그리고 중앙 후방에는 근위군을 결전용 예비 병력으로 배치했습니다. 웰링턴은 보병대를 전면에 전개하고 중앙 후방에 기병 사단을 집중 배치하여 프로이센군이 도착할 때까지 방어를 우선하게 포진했습니다.

전날밤의 비로 인해 땅이 진흙탕처럼 변해 버려 대포의 이동이 늦어져 나폴레옹은 공격 개시 시간을 아침에서 11 시로 늦추게 되는데 이것 또한 프랑스군 패배의 또다른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나아가 나폴레옹은 프로이센군을 추격하기 위해 보냈던 그루시 원수를 불러 들이기 위해 전령을 보낼 것을 지시했으나, 명령을 받은 장군은 겨우 1 명만 보내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정오가 지나면서 프로이센군이 멀리 보이는 지점까지 도달했고 프로이센군이 도착하기 전에 결판을 지어야 하는 나폴레옹이 포격을 재개하자, 웰링턴은 전선을 다시 후퇴시켰거 18 시 프로이센군이 도착해 무너진 좌익을 보강하자 웰링턴은 보병을 4 열 횡대로 산개시켰습니다.

나폴레옹의 근위군이 기병의 호위를 받으며 전진했지만 영국 근위 사단이 일제사격을 퍼붓자 프랑스 근위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자 웰링턴은 영국 기병대를 내보냈고 프로이센군도 우익에서 돌격하자 프랑스군은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때까지 투입되지 않았던 친위대 일부가 나폴레옹의 퇴각을 엄호했으며 그 희생으로 나폴레옹은 전장을 이탈했고, 프랑스군은 패주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연합군은 승리하였고 나폴레옹은 항복한 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 1820년 네덜란드의 왕이었던 윌리엄 1세는 이 전투지, 특히 그의 아들이 부상당한 곳으로 알려진 곳에 기념물을 건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사자의 언덕으로 알려진 이곳을 건설하기 위해 30만 입방미터의 흙이 사용되었으며 그 위에는 당시에 사용된 무기를 녹여 사자상을 만들어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불어로 Butte de Lion(사자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이 워털루 전쟁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나폴레옹의 자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 되었다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잠 16:18) 그리고 아무리 병력과 장비가 좋아도 비가 오는 바람에 패배한 것은 결국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상 17:47) 마지막으로 지금 워털루의 언덕에 있는 사자는 궁극적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계 5:5)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해 줍니다.



당시 전투 형태



지금의 워털루

## FTA 와 BESPA

2009년 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EU)과 FTA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TA는 문자 그대로 자유 무역 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으로서 수출입 관세와 시장 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조약으로 회원국간 특혜 무역 협정에 이은 경제 통합의 두번째 단계입니다. 이 자유무역협정은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한, 소위 윈윈 전략(win-win strategy)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자국의 취약 산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국의 문화까지 좌우하는 역기능도 있어 논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이제는 글로벌 20 위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EU 도 한국의 위상을 실감하며 무역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 발전은 그야말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제품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판매하여 외화를 획득함으로 국내의 경제 발전은 가속화되었고 그리하여 50년이 지난 현재 한국 경제는 고속 성장하여 글로벌 경제체제를 구축해 가며 점차적으로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도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가령 세계 주요 일간지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지난 10월 23일 '떠오르는 한국(South Korea Rising)'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의의와 한국의 대 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한국의 위상이 여러 면에서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 예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년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 유럽 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국제통화기금(IMF) 투표권 확대 등을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기적같은 성장을 이룬 한국 교회는 최근 성장이 멈추었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선교 단체에 미치는 한국인 선교사들의 리더십은 아직 그 정도로 업그레이드된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학문의 수준은 아직도 모방 내지는 답보 차원으로 격차가 느껴집니다. 따라서 21세기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글로벌 리더십을 얼마나 제고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유럽에서 학업과 사역으로 20년을 보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유럽 교회들이 인식하는 한국 교회의 위상이 어느 정도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동반자적 리더십을 공유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대륙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지난 6 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 세계 4 억 2000 만명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대변하는 세계복음주의 협의회(WEA)에 가입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를 부산에 유치한 것은 신학적 논쟁을 떠나 일단 한국 교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도 이제는 이러한 국제적 협력에 좀더 눈을 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제가 살던 독일의 쾰른에는 그 지역내 외국인 교회 및 독일교회 목회자들간의 협의회가 있어 좋은 교류의 장이 되었고 나아가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있는 외국인 교회 협의체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역하고 있는 벨기에의 브뤼셀 지역에도 유럽 연합의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간에도 다양한 만남의 장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베스파 (BESPA)입니다. 이 단어는 Brussels English-speaking Pastors Association의 약자로서 브뤼셀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 선교사 또는 전문 사역자들로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분들의 모임입니다. 원래 이 모임은 90년대 초반에 몇몇 목회자들의 모임으로 출발했으나 이제는 브뤼셀 전역을 포괄하는 교류의 장으로 발전했습니다. 1996년 성삼위 교회에서 영국의 저명한 복음주의자 존 스토프 목사님을 초청하여 집회를 가지던 중, 브뤼셀 카톨릭 교구의 가장 큰 성 미셸 성당에서 다니엘스 추기경을 초청한 만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현재의 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복음적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기타 폐라처치 사역자들도 참여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카톨릭 신부, 러시아 정교회 평신도 사역자, 스웨덴 교회 디아콘, 나토 군목, 크리스챤 카운셀러, 청소년 지도자 등도 참여하면서 유럽 연합의 많은 기관들을 접촉하는 동시에 다양한 그룹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장을 통해 사역의 비전을 넓히며 동시에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존재를 알리고 다양한 기여를 통해 직접 간접으로 협력을 조금씩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며 기업이 다국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주님의 교회가 이미 보편적인 교회 (universal church)이며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는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리더십 발휘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 Consensus Builder(공감을 이끌어 내는 사람)

2009년 말 유럽 연합 지도자들은 새로운 소위 ‘유럽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현 벨기에 총리인 헤르만 판 롬파위(Herman Van Rompuy)가 11월 19일, 유럽 연합의 27개국 정상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첫 유럽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상임 의장이 된 것입니다. 이 상임 의장은 대외적으로 유럽 연합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유럽 정상회의를 주재합니다. 그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수상은 그를 한마디로 ‘consensus builder(공감을 이끌어내는 인물)’라고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동안 북부 네덜란드어권인 플란더스 지역과 남부 불어권인 왈룬 지역간의 대립으로 정치적 불안을 겪었던 벨기에를 다시 안정시켰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적어도 이 ‘공감대를 창출하는 리더’라는 한 마디가 뇌리에 깊이 새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 그는 다양한 유럽 연합 국가들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판 롬파위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을 때부터 플레미시 기독 민주당 (Christendemocratisch en Vlaams, CD&V)에서 활동하였고, 1985년부터 95년까지는 상원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93년에는 예산부 장관에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1999년에는 다시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2004년에는 내무부 장관으로 일하다가 2007년에 하원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 후 2008년 12월, 레테름(Y. Leterme) 총리가 사임한 후 국왕에 의해 후임으로 지명되자, 5개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 정부를 구성한 후 총리에 취임하여 지금까지 무난히 이끌어 온 분입니다.

유럽 연합 상임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그는 “2년 6개월의 임기 동안 공동체의 단합과 실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체코를 마지막으로 유럽 연합 27개 모든 회원국의 비준을 받은 유럽의 준헌법인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 2010년부터는 정치적으로 더욱 통합된 소위 ‘유럽 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이 출현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 연합은 유엔에 대해서도 앞으로 유럽 연합의 지위를 바티칸이나 팔레스타인 같은 ‘준국가’가 아니라, 유엔 총회 및 위원회에서 별도의 의석과 명패를 부여받는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 또한 “첫 유럽 연합 상임의장의 선출로 유럽은 미국의 더욱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를 일컬어 언론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타협으로 이끌어 내는 대단한 노력가: a painstaking builder of impossible agreements (*l'horloger des compromis impossibles*)”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최근의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타협을 통해 함께 승리해야 합니다. 한 쪽이 패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타협은 결코 좋은 타협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유럽의 일치와 연합은 강점으로, 다양함은 풍부함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보수적 가톨릭 신자로서 그는 전통적 가치들, 종교의 역할, 낙태 반대, 유럽의 기독교적 뿌리 등을 보존해야 함도 강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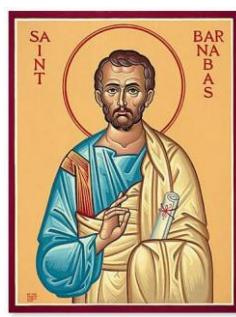
내년부터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유럽 연합의 선두 지도자인 판 롬파위 상임의장은 ‘다리 놓는 사람(a bridge-builder)’으로서 모든 면들을 최대한 고려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벨기에 정치권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그가 이제 유럽에서도 최선을 다해 공감을 창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소국 벨기에 총리가 유럽 연합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작은 나라들이 오히려 다국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소국은 역시 약소국이며 대국은 강국이지만 국제 조직에서는 ‘공감(consensus)’이 제일 중요하므로 소국과 대국의 차이는 약화되고 오히려 소국 지도자들이 최고 자리에 앉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바로 이러한 consensus builder를 ‘바나바’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도 아니었고 심지어 일곱 집사에 선출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산을 주님께 드린 헌신 및 여러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역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여 화해의 중보자로 활약했으며 10여년이 지난 후 다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찾아가 그를 동역자로 초청합니다. 나아가 안디옥 교회 내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세계 선교에 헌신함으로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온 인물입니다. 비록 나중에 사도 바울과 심히 다투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미숙한 마가 요한을 배려하고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고 만약 그 때 사도 바울이 양보하였다면 그들은 더욱 조화롭게 사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 내에도 이러한 consensus builder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다양한 그룹들을 조정, 통합하고 부차적인 이슈들로 분열된 교회 및 교단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회복하며 격려와 화해의 중보자로 섬길 때 주님께서는 마침내 남북한의 평화적 통합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헤르만 판 롬파위



바나바

## 유럽의 화해자: Robert Schuman

2010년은 로베르 쉬망(Robert Schuman, 1886-1963)이 2차 세계 대전 직후 1950년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유럽 연합의 비전을 선언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후 유럽은 계속해서 그의 비전을 실현하여 오늘의 유럽 연합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쉬망은 원래 룩셈부르크 태생이지만 나중에 프랑스 정치가로 활동한 분입니다. 그는 기독민주당 및 유럽 연합의 창시자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특별히 양차 세계 대전 후,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다른 유럽 나라들이 화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리더입니다.

쉬망은 다양한 문화를 접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렌 주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나중에 이 지역이 독일제국의 영토로 편입되면서 독일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룩셈부르크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을 통해 독일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로베르도 룩셈부르크에서 태어났지만 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독일인이 되었다가 1919년 알자스-로렌 지역이 다시 프랑스령이 되면서 국적이 프랑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모국어는 룩셈부르크어였지만 학교에서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이후 독일의 여러 대학에서 신학, 철학, 법 등을 공부하여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마차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자 쉬망은 수도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변호사가 되었지만 1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건강상 병역에서 면제받아 대신 사회봉사를 했습니다. 1차 대전 후 알자스-로렌 지방이 프랑스령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프랑스 정치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1919년에 국회 의원이 되었고 나중에는 국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전쟁이 로렌 지역의 석탄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2차 대전 중에는 독일 나찌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에도 참여하다 게슈타포에 체포되었으나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전후에는 프랑스의 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국무 총리직도 2번이나 수행하면서 공산당과 드골주의에 정면 배치되는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그 후 외무 장관이 되면서 전후 유럽이 상호 미움과 불신을 제거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미래의 비전으로 1950년 5월 9일, 파리의 외무부 청사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라는 원칙하에 초국가적 민주공동체를 유럽에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쉬망 선언(Schuman Declaration)’을 발표하게 됩니다. 나아가 자유와 평등, 단결과 평화는 기독교적 가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도 그리스적인 ‘다수의’, ‘독재’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섬김’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기초함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미래의 연합된 유럽은 기독교적인 동시에 민주적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전통과 유산에서 단절된다면 평등, 인간의

존엄성, 관용 그리고 연민(compassion)의 정신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유럽의 다양성과 통일성 (unity with diversity)도 기독교적 관용과 평등이라는 정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공동체의 기준 회원국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의 원칙에 따라 쉬망의 발언에 동의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쉬망의 선언에 동의했고 콘라드 아데나워가 수상으로 재직하던 독일을 비롯해 모든 유럽 국가들의 석탄철강업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51년 파리 회의 이후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 선언을 기초로 1958년에 유럽 의회의 전신인 유럽 위원회(European Assembly)가 설립되었으며 쉬망이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 연합은 5월 9일을 그 창립 기념일로 정하고 지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아마도 유럽의 현대사에 있어 철의 장막이 드라마틱하게 무너진 것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양차 세계 대전 이후 역사에 유래가 없는 60년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쉬망은 기독교 민주당원이었고 독립적이며 행동적인 정치 사상가였습니다. 나아가 그는 유럽 연합뿐만 아니라 유럽각료회의(Council of Europe)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를 창설하는 주역이 됩니다. 1960년, 건강이 악화되어 은퇴하면서 그는 '유럽의 아버지(Father of Europe)'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쉬망은 동시에 성경도 깊이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포함한 중세 철학의 전문가였으며 특히 자끄 마리탱(Jacques Maritain)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유럽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The Schuman Center 가 창설되었습니다. ([www.schumancentre.eu](http://www.schumancentre.eu)) YWAM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Jeff Fountain이 쉬망의 비전을 성경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유럽의 과거를 통해 내려오는 신앙적 유산들을 정리하고, 현재 상황을 분석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쉬망이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양차 세계 대전을 종식하고 전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면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유럽의 화해자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진정한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후 5:18)



## 제 4 부 글로벌 퍼스펙티브

##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몇 년 전, 독일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독일 복음주의 협의회 및 로잔 위원회가 주관하는 모임에 참석하여 한 개신교 수도사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Das Lebenszentrum Adelshofen ([www.lza.de](http://www.lza.de))이라고 하는 개신교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형제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을 내어 가족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방문하여 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돌아오는 길에 이 분의 소개로 독일 선교회(Deutsche Missionsgemeinschaft: [www.dmgint.de](http://www.dmgint.de))가 바로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곳도 한번 방문하고자 잠시 들리게 되었습니다.

Sinsheim이라고 하는 한적한 마을에 위치해 있는 이 선교회에서 따뜻한 안내를 받고 건물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와 닿은 것은 바로 채플 건물이었습니다. 옛날 건물이지만 적절히 개조하여 중후한 예배당으로 꾸며 놓았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저의 눈은 앞쪽에 걸려있는 큰 현수막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ein Bethaus für alle Völker)’이라는 글자가 독일어로 뚜렷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어 놓았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계속 사라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인시켜 준 경험을 지난 2007년 여름에 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와 거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아이오나(Iona)섬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수도원 예배당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입구에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여러 나라 언어로 출판된 성경들이 책꽂이에 가지런히 꽂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바로 이 곳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전을 저에게 확정시켜 주신 사건은 바로 제가 벨기에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2006년 가을에 어느 영국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와서 벨기에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첫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문의해 오셨습니다. 물론 저는 두 말하지 않고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다른 사역들 때문에 그 사실을 깜박 잊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 전화하셨던 목사님께서 며칠 전 다시 전화로 확인해 주셔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었고 저도 참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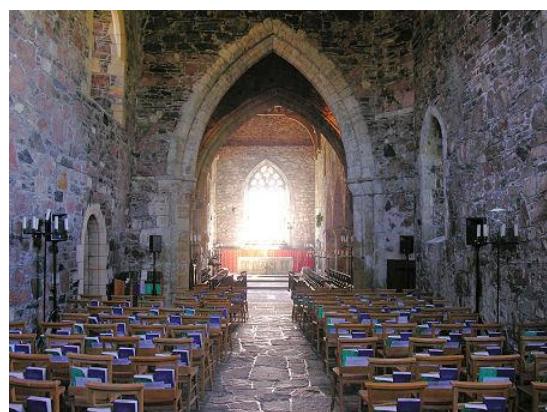
이 모임은 한 벨기에 목사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신 중보 기도 모임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한국도 방문하셨고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 가셔서 일주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적도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한인교회를 모임 장소로 결정하게 되었느냐고 질문하였더니

첫째는 교통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오시는 목사님들께서 찾으시기가 편하다는 점을 들었고 둘째로는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분들은 15 분 정도였는데 그야말로 다양한 교회와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동쪽 Liege에서 오신 아프리카 목사님도 있었고 서쪽 북해 바다 근처에서 오신 벨기에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브뤼셀 시내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흑인 목사님도 오셨고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벨기에서 사역하시는 미국 목사님도 한 분 계셨고 그리스 출신의 자매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분들과 함께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벨기에의 영적 부흥과, 당시에 총선이 끝났는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북쪽 플랑드르 지역과 남쪽 왈로니 지역 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내각이 구성되지 않은 벨기에 정부를 위해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www.pray4belgium.org](http://www.pray4belgium.org)라는 웹사이트도 만들어 이 땅에 새로운 부흥 운동이 일어나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모임을 저희 교회가 개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진행된 이 모임은 진정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강조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심겨진 곳에서 영적인 센터로 쓰임받아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 선교회(Deutsche Missionsgemeinschaft)



아이오나 수도원 채플 전경

## 열두 교차로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큰 공원이 있습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 나오는, 벨기에가 자랑하는 아프리카 박물관(사진)과 테르퓨렌(Tervuren) 공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프리카 박물관은 백여년전 벨기에가 지금의 콩고, 르완다, 부룬디를 식민지로 통치할 때 세계박람회(world expo)를 개최하면서 건설했고 그 주변은 그 전부터 왕의 식민지 왕궁(Colonial Palace)과 함께 주변에 큰 숲을 조성하여 사냥터로 사용했으며 나중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개방한 것입니다. 이 공원은 브뤼셀의 동쪽 교외 지역에 있는데 여기서 시내까지 이미 백년 전에 큰 도로를 건설하였고 지금도 주변 경관은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저는 시간이 나는 대로 아내와 함께 또는 혼자 이 공원을 산책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목상도 합니다. 박물관 앞에는 아름다운 연못과 불란서식 정원이 있고 좀더 내려가면 큰 호수도 있으며, 숲이 울창한데 그 숲속으로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자주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가면 자그마치 열 두 교차로를 만나게 됩니다. (지도 참조) 저는 평생 이렇게 많은 길이 한 곳에서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큰 길이 팔방으로 나 있고 그 사이에 작은 길들이 다시 사방으로 뻗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중심에 큰 바위가 세 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바위를 보면서 든 생각은 바로 야곱의 벤엘 사건이었습니다. (창 28)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언약을 받았으며 하늘 나라의 비전을 보았던 곳이 바로 벤엘이었습니다. 이곳으로 가려면 약간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곳을 갈 때마다 즐겨 이 찬송을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 갑니다.’ 또한 큰 돌 세 개는 우리의 반석이신 삼위 하나님의 상징처럼 느껴졌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라는 우리의 삶의 원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 목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은 이 열두 교차로가 여호수아 24 장에 나오는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모아 놓고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재 다짐한 후 그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주의 성소 옆 상수리나무 아래에 큰 돌을 놓고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는 각각 분할 받은 땅으로 사방, 팔방, 열두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주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새겨 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나아가 이 곳은 저에게 다시 마 28:18-20 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충실하여 열 두 사도는 그야말로 열두 방으로 흩어져 생명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안드레는 그리스도로, 요한은 에베소로, 다대오는 페르시아로, 빌립은 히에라볼리로, 도마는 인도로, 바돌로매는 아르메니아로 등. 열두 사도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그 뒤를 따랐지요. 바나바는 구브로로, 바울은 유럽으로, 마가 요한은 북아프리카로 등.

저는 이 열두 교차로에서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을 회상하며 그들의 비전과 헌신을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나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이 열두 교차로에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부흥의 축복을 주신 후 열방으로 나아가 하늘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여 지금도 수많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교회로, 선교사로, MK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민족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열두 교차로가 완성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인종과 신분 그리고 언어를 초월하여 천상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과 함께 하나되어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리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계 5)

동시에 이 열두 교차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다양한 영역, 모든 길에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만유의 주체가 되시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셔서 통치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테르퓨렌 공원의 아프리카 박물관 전경



12 교차로가 나타난 지도

## 폴란드의 비극과 소망

지난 2010년 4월 10일(토) 러시아에서 일어난 비행기 추락사고로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 부부 등 폴란드 지도급 인사 9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슈마이진스키 하원 부의장, 국가안보국장, 군참모 총장, 육해공군 사령관 등 폴란드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타고 있었습니다. 이 참사로 폴란드 전국은 갑자기 장례식장으로 변해버렸고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폴란드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인 동시에 애국심이 가장 강한 이들은 70년 전, 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4월, 모스크바 서남쪽 카틴에 자리잡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던 4000여명의 폴란드인들이 참살 당한 현장의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당시 카틴에서 희생당한 사람들도 대부분 폴란드의 지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치의 만행과는 달리 이 ‘카틴의 만행 사건’은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폴란드가 2차 대전 이후 계속해서 소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폴란드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민족적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상가상으로 카틴의 비극보다 더 큰 비극적인 사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사회는 큰 혼란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 국민들이 이러한 충격과 슬픔을 차분하면서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미국 하버드대의 스티븐 월트 국제 정치학 교수는 지난 4월 12일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에 기고한 글에서 그들은 “한 개인의 리더십이나 유일 정당의 억제되지 않은 권위에 의해 국가의 안정이 좌우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즉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의 갑작스런 사망에도 폴란드 사회는 모든 부분에서 영속성을 가능케 하는 정통성 있는 법과 제도의 체계에 따라 움직여왔다는 것입니다. 월트 교수는 폴란드와 다른 경우로 이라크를 예로 들면서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고 집권당이 해체되자 국가 기강이 흔들리면서 치열한 종파 분쟁이 일어났음을 지적했습니다. 후세인의 뜻이 곧 나라의 법이었다가 그가 제거되자 그 공백을 메울 정통성 있는 법과 제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더 깊은 곳에 그 기본 동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기독 신앙, 그 중에서도 가톨릭이 강한 나라로서 국민들의 경건성이 매우 높은 편으로 유럽에서 가장 신앙이 강한 나라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필자가 오래 전 폴란드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크라코프(Krakow)에 갔을 때 2차 대전 당시 가장 큰 비극의 현장인

아우슈비츠 강제 노동 수용소와 함께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 세의 고향인 작은 마을 바도비체(Wadowice)에도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지만 반면에 바도비체에서는 하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마침 그 동네 성당에서 미사가 드려지고 있어 들어가 보았는데 집전하는 신부님과 성도들의 예배 자세에 진지한 경건이 넘쳐 흐르는 모습을 보면 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곳의 교회는 생명력이 있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민의 94%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89.8%가 가톨릭이고 나머지가 동방 정교(약 50만 명), 개신교도들(15만 명)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약 12만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신자이든 아니든 간에 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있으며 폴란드의 정신적 유산이자 문화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도 1989년부터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교회의 영향으로 심지어 공교육에도 교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조사에 의하면 72%의 국민들이 공립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편 폴란드의 가장 큰 개신교회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개신교회(The Evangelical Church of Augsburg Confession)입니다. 이 교회도 제 2차 대전시에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으나 독일 교회의 지원과 자체적인 노력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금 활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거한 레흐 카진스키 대통령도 가톨릭이지만 폴란드 역사상 최초로 지난 2008년 10월 12일에 시에진(Cieszyn)에 있는 개신교회인 예수 교회를 대통령 자격으로 공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폴란드 개신교인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수상을 지낸 후, 2009년부터 독일의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유럽 의회 의장을 지낸 한스 게르트 푸터링(Hans-Gert Pöttering)의 후임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저지 부체(Jerzy Buzek)의 것입니다. 비록 폴란드가 그동안 수많은 외침과 고난을 겪었지만 이러한 신앙의 힘이 살아 있기에, 간혹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국난도 이겨내고 더욱 성숙한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해 나갈 소망이 있음을 저는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건국 초기에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지금 한국교회와 사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우리의 조국과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 올림픽 우상

지난 2008년 8월 8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 29회 하계 올림픽은 지구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세계 205개국에서 15,0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티베트 사태, 쓰촨 지진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지만 대회 준비와 개막식, 대부분의 경기와 폐막식에 이르기까지 이번 올림픽은 문자 그대로 중국(中國)이 세계의 중심으로 다시 비상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에 충분한 이벤트였습니다. 결국 예상한 대로 중국은 미국을 가볍게 제치고 최대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한 선수들도 그만큼 땀흘린 보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시작되기 얼마 전 한 독일 TV 방송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방영했습니다. 중국의 어느 특수 체육학교를 집중 취재한 것입니다. 이 학교는 중국의 체육 영재들을 배출하는 곳으로 특히 올림픽 꿈나무들을 집중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도 간단한 취재가 있었지만 독일 방송은 보다 심층적으로 보도해서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유치원에 들어갈 정도의 아이들, 놀이터에서 신나게 친구들과 뛰어놀며 어린 시절을 즐겨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일반 유치원이나 학교보다 열 배 이상의 등록금을 내면서도 자녀들을 이 학교에 넣었고 그 목표는 오직 하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금메달을 따기만 하면 본전을 다 뽑고도 남는다는 계산에 아이들을 혹사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체조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장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린 아이의 다리를 180도 벌리게 하고 그 가냘픈 몸 위에 사정없이 눌러 앉아 호령을 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 밑에 깔려 계속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 한 상태에서 누가 더 오래 있는지 서로 경쟁하다가 낙오가 되면 가차없이 제외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경쟁이 너무 심해 졸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취재하던 기자가 한 어린 아이와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 아이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아빠 엄마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집안 형편이 훨씬 더 나아진다고 해요.’ 부모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에도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왜 중국이 체조를 비롯한 많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독식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 방송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마음껏 놀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하는 창살없는 감옥에 갇혀 모든 것을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어린이답게 자라날 권리가 박탈당하고 메달 생산기계로

전락한 것은 어린이들을 노동 현장에 투입하여 이득을 보려는 악덕 자본가와 무엇이 다를까요? 한 지도자가 몇몇 아이들의 기량을 설명하면서 한 아이를 보여주는데 어린 나이에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한쪽 팔이 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잘하기는 하는데 팔이 휘어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마치 여러 기계 부품들을 나열한 후 시원치 않은 것은 쉽게 버리는 공장장처럼 보여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저는 전형적인 ‘우상 승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여 그것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훈련하는데 어린 시절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이것을 ‘환원주의(reductionism)’이라고 말합니다. 한 현상이나 양상을 절대화하며 다른 모든 변수들과 국면들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헤르만 도여베르트는 현실의 한 양상이 절대화되면 더 중요한 다른 양상들을 도외시하게 되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보여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놀 수 없으며 심지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모든 시간을 오직 한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에 목숨을 건 것은 분명 우상이 아닐까요?

진정한 올림픽 정신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가 사명 선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정, 결속 및 정당한 경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함으로 보다 평화롭고 발전된 세계를 건설해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동기보다도 스포츠 자체를 즐기며 깨끗한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다양한 격려와 보상이 따르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의 금메달이 그것을 위해 꿈을 키우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간의 전부를 희생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라 ‘우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 선수들의 금메달은 한편 값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 가엽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금메달을 딴 순간 그들이 잠시 느끼는 환희 후에 인생의 공허감이 닥쳐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온갖 어려움 끝에 박사 학위를 획득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공허감처럼 말입니다. 나아가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여 도태되는 수많은 중국 선수들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보다 더욱 값진 올림픽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올림픽’입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스타디움에서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히 12:1-2)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달려갈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 ‘의의 월계관’입니다. (딤후 4:7-8; 계 2:10) 이 메달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Soli Deo Gloria)’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므로 결코 손해가 아니며 사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이 진정한 올림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T.I.U.와 T.I.G.

지난 8월 중순, 한 주간 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우간다에 단기 사역차 다녀왔습니다. 짧은 기간 있으면서 그 나라에 대해 칼럼을 쓴다는 것은 자칫 신중하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주제는 결국 보편적인 관심사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엔테베 공항에서 한 교민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2 세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다시 공부하고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와 같은 브뤼셀행 비행기를 타게 된 것입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대합실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우간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학생은 우간다의 좋은 날씨 등 밝은 면을 말하는 동시에 어려운 현실, 특히 질서가 잡히지 않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설명하면서 그럴 때마다 이 곳에 사는 외국인들은 T.I.U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This is Uganda.’의 약자입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곳, 예측을 불허하는 현상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자조적 결론입니다.

우간다는 일찍 영국의 수상 처칠이 ‘동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부를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케냐 다음으로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고원지대라 적도에 근접한 위도상에 위치하면서도 일년 내내 선풍기 없이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권이라 한국 선교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한인교회도 자체 예배당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격 받은 것은 역시 빈부의 격차였습니다.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는 7 개의 산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머문 선교사님 댁도 작은 산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올라갈수록 고급주택가였고 제일 꼭대기에는 큰 물탱크가 있어서 그 지역을 ‘탱크 힐(Tank hill)’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갈수록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생활 수준이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최악의 슬럼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캄팔라에서도 가장 많은 난민들이 모여 사는 슬럼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쪽의 르완다와 부룬디에서 처참한 인종청소가 이루어질 때 수많은 난민들이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서쪽에서는 콩고 내전 때, 북쪽에는 이슬람 정권과 남부 기독교인들 간의 내전으로 많은 수단 사람들이 피난 온 것입니다. 이들의 생활환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쓰레기 장이 따로 없어 온 거리가 쓰레기였고 하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량은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집들은 모두 무허가여서 그야말로 무질서했고 그곳에는 날마다 폭력과 매춘 그리고 마약이 성행한다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현지 목사님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인간으로 대접을 받으며 사는 것을 이미 포기한 듯 보였고 그야말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과일이나 생선을 놓고 판다고 하지만 파리떼들이 우글거리고 위생 수준이 너무 낮아 각종 질병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산 위에 사는 부자들은 대문마다 보안 장치를 하고 심지어 무장을 한 보초들을 세워 지키며 담너머에는 한 두 마리 개도 키웁니다. 그들은 이 슬럼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도둑들로 의심합니다. 반면에 낮은 곳에 있는 가난한 난민들은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이야 말로 진짜 손 큰 도둑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저래 양 계층간에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지 목사님께서 그곳을 안내하시면서 몇몇 성도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중의 한 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분은 행 3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일어설 수 없는 장애인이었고 그것도 홀로 살아가야 하는 중년 여성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 분은 그나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은 기술과 힘으로 작은 물건들을 만들어 팔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많은 여성들이 신문지 또는 폐지를 작고 얇게 말아 단단히 뭉쳐 구슬처럼 만든 후 목걸이나 팔찌 등을 만들어 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그분에게 인사했을 때, 그 분은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손을 내밀어 악수하며 얼굴에 해맑은 웃음을 저희들에게 보여 준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분이 저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한 순수한 웃음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살고 있는 유럽을 경험해 보지 못해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웃음은 ‘더 깊은 무엇’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소망과 믿음이 바탕이 된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도 줄 수 없는 하늘 나라의 기쁨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부요한 사랑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분의 웃음과 인사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7)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T.I.U 가 아니라 T.I.G(This is Gospel.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 슬럼가 어린이들의 해맑은 웃음

## 유럽의 이슬람: 도전과 대응

지난 3월 15일에서 17일까지 영국 옥스포드 근처에 있는 위클리프 센터에서는 유로 비전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 주제는 ,유럽의 현대 이슬람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발표를 해 주셔서 유럽의 이슬람 상황에 대해 좀더 깊이 알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국에도 이슬람이 매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유럽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 살고 있는 무슬림 내에서도 인종, 종파, 철학 그리고 정치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현재 다종교 사회인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이며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무슬림들이 유럽에서 5% 증가했으나 2050년에는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중 프랑스나 네덜란드는 더 많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 9개의 대표적인 유럽 국가에 약 7,000여 개의 모스크와 이슬람 예배 장소가 흩어져 있는데 그 중 80%가 독일(2,500), 프랑스(2,000) 그리고 영국(1,500)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유럽에는 모슬렘으로 개종하는 백인들이 이미 매년 10,000명에서 50,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무슬림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기에 모슬렘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보다 절대 소수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추세로 갈 경우, 2050년이 되면 이슬람이 유럽 최대의 종교가 될 것으로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만평가는 이 때쯤 되면 독일도 국명이 ‘New Turkey’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림도 그려 본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슬람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보다 조직적인 방법으로는 터키 출신 이슬람 운동가 패툴라 굴렌 (Fethullah Guellen)은 영국을 유럽 이슬람의 센터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아는 한 네덜란드의 여자 목사님은 자기 딸이 터키의 무슬림 청년과 결혼하면서 무슬림으로 개종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 보았습니다. 벨기에 남편과 결혼한 한국 여 성도님의 큰 아들은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다가 무슬림의 계략에 말려 들어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어 나오지 못하면서 부모의 큰 기도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파리의 한 한인집사님 내외분 아들도 학교에서 무슬림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결국 무슬림으로 개종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였지만 친구 무슬림은 진정한 신앙과 경건한 삶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이 아들의 마음이 이슬람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럽의 이슬람은 면 이웃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내에도 침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세계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힘이 무슬림에게 있으며 이슬람 법 (Sharia)이 강제되는 House of Islam (Dar al-Islam, 이슬람의 집)과 무슬림이 소수로 정치적인 힘이 없는 House of war (Dar al-harb, 전쟁의 집)로 구분되며, 무슬림은 심판의 날까지 전쟁의 집이 이슬람의 집으로 전환되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개인적 결단과 구원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슬람은 공동체의 환경을 이슬람 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전체를 이슬람으로 집으로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웃 무슬림을 사랑하기 보다는 두려워하는 소위 ,Islamophobia‘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할까요?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이라면, 그리스도인들 또한 복음을 향한 새로운 열정과 혼신만이 최선의 대응이 될 것입니다. 먼저 무슬림 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나아가 모든 무슬림들이 한 명의 기독교인 친구를 사귀어 그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레 19:33-34)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과 어울리고 그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우정을 쌓으며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관련 서적을 읽고 탐구하고 대화하며 구체적 전략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며 필요할 때 성경 구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논쟁에서 승리해도 상대방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친구에게 천국을 허락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라든가, ,용서에 대해 꾸란은 무엇을 가르칠판니까?’ 등입니다. 또한 무슬림 문화를 존중하여 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열매는 주님께서 거두시도록 위임해야 하겠습니다.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유럽의 한인 2 세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장차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유념하면서 2 세들의 신앙 교육에 이슬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선교 전략도 포함해야 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가장 치열한 이슬람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 남북한의 하나됨을 위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기도

2009년은 독일이 통일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으로 그리고 동서 이데올로기가 대립한 상징이 바로 동독과 서독의 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단의 시기에도 동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 계속 기도하였고 특별히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은 동독 교회를 사랑과 동시에 구체적인 물질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이러한 영적 유대감 (solidarity)과 일치감(unity) 속에 동독의 라이프찌히에 있던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평화를 위한 촛불 기도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소수에 의해 시작된 이 기도 모임이 급기야 여리고성과 같은 동독 정권을 무너뜨리고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 평화적으로 동서독이 하나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았지만 통일의 축복을 누리며 독일은 이제 유럽의 강대국으로, 그리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 독일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축복이 한반도에도 임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벨기에는 한 나라이지만 두 민족이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고대에 켈트족 일파가 거주하다 주전 57년 시저에게 정복되어 ‘벨기카 (Belgica)’라는 로마 속주가 되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멸망 후 화란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북부에, 불어를 쓰는 사람들은 남부에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 무역이 활발해진 12-13세기에 남부 지역에는 금속공업, 북부에는 모직공업이 발전하면서 자치 도시가 생겨났지만 열강의 세력 다툼으로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나폴레옹이 실각한 뒤 네덜란드에 합병되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국왕인 윌лем(Willem) 1세가 북부 중심적인 통치를 하자, 벨기에인들이 반발하면서 브뤼셀에서 혁명을 일으켜 1830년 독립하게 되었고 1839년 런던회의에서 영세중립국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두 민족이지만 가톨릭 신앙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두 지역 간에 정치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벨기에 인구 천만명 중 약 80%가 가톨릭 신자로 나타나 있지만 이 중 매주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신교인은 1%정도니까 10만명 정도입니다. 반면에 모슬렘은 3%, 무교가 15%를 차지합니다. 이렇듯 가톨릭 신앙이 국가 통합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하면서 결국 경제적 실리가 두 지역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쪽의 일부 독일 영토가 흡수되어 독일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지역을 제외하면 북부 지역이 경제의 중심이 되어 있고 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은 불어 사용 인구가 80%이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네덜란드어, 영어 및 독일어를 구사하여 명실공히 유럽 연합의 수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함

속의 일치를 추구하면서 평화와 화합 그리고 관용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기에 경제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에는 계속해서 유럽 연합의 중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건국 최초로 한국의 국보급 문화재들이 대거 전시되는 최대의 한국 문화 축제, 코리아 페스티벌이 지난 2008년 10월초부터 2009년 2월말까지 벨기에의 대표적 예술의 전당인 보자르(BOZAR)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유럽 연합을 대상으로 하는 양국 정부의 야심적인 프로젝트로 5000년 역사의 한국 문화가 유럽인들에게 소개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1월 셋째주에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의 하나님’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행사는 1908년 미국 뉴욕에서 폴 왓슨(Paul Wattson)이라는 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위한 기도주간을 매년 이 주간으로 정한 후 지금까지 100년 이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 이 연합 예배가 브뤼셀 시내의 왕립 채플(Chappelle Royale)에서 드려져 참가해 보니 각 교단 대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설교는 영국 성공회에서 오신 인네스(R. Innes)목사님께서 영어로, 다른 순서를 맡으신 분들 중 어떤 분은 화란어로 다른 분은 불어로 그리고 그리스 정교 신부님은 심지어 그리스어로 진행하였습니다. 폐회 찬송을 부르는데 1 절은 불어, 2 절은 화란어 그리고 3 절은 영어로 불렀습니다. 언어나 문화적 차이, 인종의 다양성이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더 영광스러운 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9년 이 기도주간의 포커스는 한국에 맞추었습니다. 주제 성구는겔 37:15-28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회복시키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겸 34장에서 이미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새로운 지도자 즉 메시아를 보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아가 36장에서는 장차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 그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며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대로 마른 뼈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새로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더 나아가 남북으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로 회복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우상들을 숭배한 후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었던 두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지만 다시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되며 통일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만 받은 말씀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기 전 예레미야 선지자도 받았으며 (렘 3:18) 그 보다 훨씬 더 이전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호 1:11) 이 말씀은 일차로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고 만물이 하나되는 비전입니다. (엡 1:10; 계 5:11-14) 나아가 그 때에는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23-26절)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평화의 언약을 영원토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되어 서로 섬길 때 주님께서 남북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주시는 충만한 살롬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보았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길 간구합니다.



2009년 1월 22일 브뤼셀의 영국교회에서 열린 연합예배

브뤼셀 한인교회 보좌 앞 성가대가 찬양으로 섬겼다.



## 한인교회는 네모난 원(?)

20 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한인 디아스포라는 21 세기에 들어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에게 가도 한국인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이름에 ‘한인교회’가 붙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인교회가 한인교회만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해외의 한인교회들이 영원히 한인교회만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네모난 원’과 같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대부분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고 (행 6), 앤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보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나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이며 마나엔과 사울은 각각 소아시아 출신이며 2 세였을 것입니다. (행 13)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또한 다민족과 다양한 계층이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루디아는 상류 계층의 아시아 여성이었으며 귀신들렸다가 나은 여종은 가장 하류 계층의 헬라 또는 외국에서 유입된 노예였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중산층의 로마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행 16) 나아가 갈라디아 및 에베소 교회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물론 해외로 진출한 한인들이 한국어로 예배드리는 한인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틀렸거나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한국어를 통해 복음을 듣고 신앙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신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어떤 민족, 어떤 언어도 그 자체가 다른 민족이나 언어보다 열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떠난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심겨진 그곳에서 편안하고 익숙한 한국어로 예배드리며 계속해서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게 중심은 역시 ‘한인’이 아니라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는 하늘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처음에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세 번이나 보여 주시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고서야 비로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다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최근 한국내에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지역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끌어 안으며 그들을 섬기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도 이제는 더이상 단일민족사회가 아니라 다민족이 공존하는 사회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선교와 더불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동시 통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각 민족 그룹별로 소그룹을 만들어 자체적인 성경 공부 및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성도들에게 보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초대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또한 이제 1 세대에서 2, 3 세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3 세대의 경우 국제 결혼의 추세도 증가하고 있어 한인교회 안에도 다양한 커플들이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경우, 벨기에에 있어 한국인 부인과 벨기에 남편들이 있는데 플래미시권과 불어권이 있고, 나아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남편과 가정을 이룬 성도들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즉 새로운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더이상 한 민족 교회 (one ethnic church)로 한정하기보다는 보다 복음에 충실한 보편적 교회 (global or universal church)의 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인’이란 단어를 배제한 새로운 교회 이름을 짓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령 벨지움에 있는 한 필리핀 교회의 이름은 아예 ‘Praise Center’입니다.

물론 주재원들이나 유학생 중심의 교회라면 한인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들에게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한인들만으로 이루어진 교회들로 계속 남아있는 해외 교회의 경우 자칫 여러 가지 갈등으로 분쟁이나 분열의 아픔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계토 멘탈리티(Ghetto mentality)’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민족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교회는 유독 외딴 섬처럼 고립되다보면 사소한 문제로도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방하고 보다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다른 교회들과 교류와 협력의 폭을 광범위화하고 가능한 그 지역의 모든 민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더이상 ‘네모난 원’이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 장애인 봉사견(奉事犬)<sup>1</sup>

제가 사역하는 벨기에에는 많은 입양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님은 다른 입양인들을 돋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뇌졸중(stroke)이 여러 번 와서 훨체어에 앉아야 했습니다. 원래 신앙이 있는 분이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어느 날 교회에 한마리 개를 데리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개와 함께 조용히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개는 장애인을 돋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은 봉사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벨기에에는 장애인들을 돋는 이런 특별한 봉사견이 있습니다. 물론 시각 장애인들을 돋는 봉사견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돋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은 봉사견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벨기에에 ‘마음과 마음 사단법인’ (불어로는 Coeur à Coeur, 네덜란드어로는 Hart tegen Hart, 영어로는 Heart to Heart)이라고 하는 단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단체는 봉사견을 훈련시켜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보다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는 대상은 움직임이 불편한 장애인들, 정신 지체 장애인들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이며, 봉사견은 먼저 약 일년 반 정도 훈련을 받으며 그 후 약 8 개월간 주인이 될 장애인과 사귀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8 개월 정도 되었을 때 장애인 주인에게 가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본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장애인들을 돋는 봉사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견은 질병이나 사고 또는 선천성 장애로 평생을 훨체어에 앉아 보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진정 크나큰 도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봉사견들은 어떻게 훈련될까요?

우선 봉사견들은 어떤 물건들을(열쇠, 리모콘, 수건 등 바닥에 떨어진 어떤 것들, 심지어 동전까지!) 주워 주인의 무릎 또는 손에 가져 오도록 훈련받습니다. 나아가 봉사견들은 문을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스위치를 켜기도 합니다. 명령에 따라 짖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합니다. 옷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선반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수퍼마켓의 계산대에서 지불할 수도 있도록 훈련받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봉사견들은 한 가지 언어로 50 여가지의 명령을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을 돋습니다.

---

<sup>1</sup> 본고는 유럽 밀알 2009년 사랑의 캠프시간에 발표한 후 실린 것을 다듬은 것입니다.

다른 한편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진정 신실한 친구를 얻게 되며 정서적 안정과 사회에 보다 더 쉽게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봉사견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도 쉽고 따라서 더이상 소외되지 않습니다.

본 단체의 특징은 각 봉사견에게 개별적인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8 주된 강아지들이 입양 가정에 넘겨지면 적응 과정을 거쳐 한 가지씩 명령을 이해하도록 훈련받습니다. 2 주마다 단체 훈련도 하면서 어느 정도 훈련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훈련 기간 중, 필요하다면 직원이 입양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14-16 개월이 지나면 봉사견은 이제 장애인을 도울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주인될 장애인과의 만남이 약속되고 만난 후 함께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봉사견들은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조건은 장애인에게 소중한 존재이어야 하며 주인은 이 개를 사랑하고 잘 돌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 봉사견이 제대로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회견(社會犬)이 되어 정신지체 장애인들이나 자폐아동에게 가게 됩니다. 이 봉사견은 또한 양로원이나 정신지체 장애 어린이들이 있는 기관이나 병원에서 완화 보호소 (palliative care units)에서 동물 보조 활동(Animal Assisted Activities)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장애인들은 훈련된 봉사견에 대해 들어보기도 전에 이미 한마리 개를 구입하여 데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 단체는 어떤 조건들 하에서는 이러한 개들도 훈련시켜 봉사견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그 개가 너무 늙지 않아야 하며, 쉽게 훈련되는 종류이어야 하고 어떤 시험에 우선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봉사견으로 가장 좋은 종은 리트리버(Retriever)입니다. (아래 사진 참조) 특히 라브라도 리트리버(Labrador Retriever), 골든 리트리버(Golden Retriever), 플랫코티드 리트리버(Flatcoated Retriever)가 좋습니다. 이 봉사견들은 크고 튼튼하며, 침착하고 혼신적이며 사회성이 있으며 물건을 잘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봉사견들은 모두 족보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신중하게 선택됩니다.

이러한 봉사견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자원 봉사자들과 재정 후원자들에 의해 이 단체가 유지되어왔습니다.

만일 이 단체를 돋기 원한다면 한 마리 강아지가 18 개월이 될 때까지 키워주는 일을 할 수 있고, 벨기에에서는 이 구좌번호(370-920415-69, IBAN BE71 3700 9204 1569, BIC BBRUBEBB)로 €30,00 이상 후원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공식 스폰서로 후원할 수 있으며 본 협회를 후원하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자원봉사자로 크고 작은 일에 섬길 수도 있습니다.

본 단체는 유럽 봉사견 협회(ADEu: Assistance Dogs Europe, [www.assistancedogseurope.org](http://www.assistancedogseurope.org))의 회원이며 벨기에 봉사견 협회 (Assistance Dogs Belgium)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연락처를 원하는 분은 Hart Tegen Hart VZW, Rue Bruenne, 40 7502 Esplechin, 전화: Gerrit Martins + 32 9 252 43 25 또는 + 32 494 56 13 94, 이메일은 [info@harttegenhart.be](mailto:info@harttegenhart.be) 그리고 웹사이트는 [www.harttegenhart.be](http://www.harttegenhart.be) 를 참고하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귀한 사역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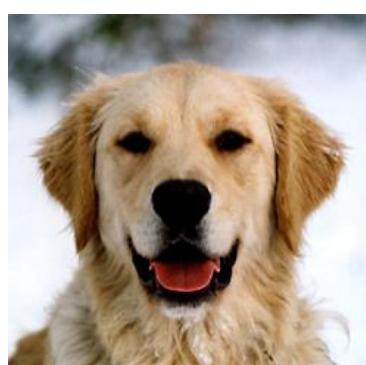
브뤼셀한인교회를 방문한 봉사견



수퍼에서 계산을 돕는 봉사견



Labrador



Golden Retriever



Flatcoated Retriever

## 피조계의 청지기 (Steward of creation)

지난 2009년 12월 7일에서 19일까지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총회는 지구촌 전체의 관심사였습니다. 2주간에 걸친 회의 결과 세계 각국이 온실 가스 감축을 추구하기로 약속한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을 공식 결정으로 채택했으나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채 구속력 없는 정치 선언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193개국이 이번 회의에서 온실 가스를 감축해 지구 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하는데 공감했으나 공통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고 그 대신 주요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감축 목표와 방법을 새해 1월 말까지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흥국들의 온실 가스 감축 실적을 검증할 국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나 추가 협상 과제로 남겼으며 교토 기후협약을 대체할 구속력 있는 새 기후협정을 2010년 말까지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것도 포기하고 2015년 이전에 새 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시사하는데 그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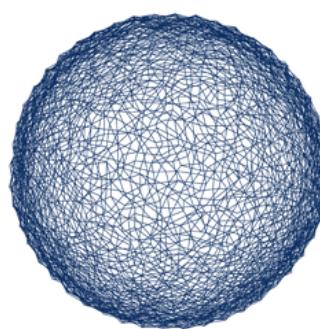
이번 회의가 사실상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 변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시각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도국은 기후 변화가 선진국이 과거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이므로 선진국이 선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배출할 온실 가스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만 주목하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책임에 걸맞은 감축 목표치와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도국의 동참만 강조해 도덕적 설득력을 갖지 못한 반면 개도국들 또한 능력에 상응한 기여보다는 이념적으로만 대응한 것도 실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선진국 국민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정받는 독일의 경우 우선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A4 용지 및 봉투는 대부분 재활용한 종이입니다. 루프트한자 항공의 기내지조차도 재생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품질이 좋아 재생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필자가 특별히 놀란 것은 독일 성도들이 일년에 한번 정도 ‘환경 주일 예배(Umweltgottesdienst)’를 야외에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웰른에서 사역할 당시 한 번은 독일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 예배에 설교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한국인 목회자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기도하면서 예배를 인도하였고 ‘하나님의 피조계 보전(Gottes Schöpfung bewahren)’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였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보통 야외 예배를 드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독일 성도들이 환경 보전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깊은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한국 정부도 ‘저탄소 녹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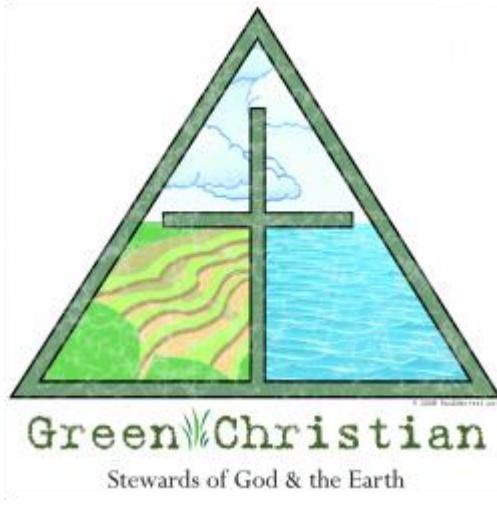
성장'을 표방하며 환경 산업을 주도하려고 노력하며 한국 교회 및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도 환경에 대한 주제로 예배도 드려지고 설교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제에 대해 더욱 더 많은 관심과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바로 ‘피조계의 청지기(steward of creation)’ 또는 ‘환경의 청지기(steward of environment)’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보시기에 매우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창 1:31) 나아가 이 피조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그리고 지혜를 분명히 나타내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시 19:1; 롬 1:20) 동시에 피조계는 하나님의 말씀(Wort)에 대한 하나의 응답(Antwort)으로 존재합니다. (시 33:9)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 피조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보존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 2:15) 따라서 우리는 단지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재물의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이 피조계 전체도 올바로 관리해야 할 청지기인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이 승배해야 할 대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착취하거나 억압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만 이 생태계를 돌보고 가꾸어야 할 청지기적 사명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인간을 두신 목적은 그것을 바로 다스리며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통해 사람은 환경과 연결되며, 또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스림’과 ‘지킴’ 이 두 단어는 상호보충적입니다. 지킴이 없고 다스림(경작)만 있으면 착취하게 되며 다스림이 없이 지키기만 하면 아무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 2:10-14 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던 강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 자원들까지도 언급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개발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암시로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올바로 개발하면서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에코 크리스천,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COP15  
COPENHAGEN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2009



## 아이슬란드 화산재의 교훈

지난 2010년 4-5월 유럽의 하늘은 아이슬란드 화산재로 항공기의 취항이 얼마간 금지되었습니다.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홍역을 치렀습니다. 아이슬란드 남부 에이야프얄라요쿨 빙하 아래 밀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와 연기가 최고 11km 상공까지 치솟았고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며 유럽 곳곳의 하늘을 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뜨거운 마그마와 빙하가 녹은 차가운 물이 만나 맹렬한 화산폭발이 일어났고, 초속 300m로 8km 높이까지 화산재가 분출되었습니다. 화산재 기둥이 아이슬란드 상공의 제트기류에 닿아 빠른 속도로 유럽에 퍼져 나갔으며 비행기의 제트 엔진 속에서 화산재가 녹으면 엔진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항공기들은 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최악의 항공 대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은 연일 국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 항공사들이 초유의 재정 적자 사태에 직면했으며 수백만 명의 여행객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오직 화산재가 빨리 제거되기만

기다렸습니다. 저도 지난 4월 말 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도 예약하고 회비도 송금했으며 교회에 광고까지 했지만 결국 항로는 차단되었고 세미나가 취소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나아가 한동안 잠잠했던 화산재가 지난 5월 8일 다시 폭발하면서 유럽의 공항들은 다시금 폐쇄되었고 전 세계의 많은 여행객들은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려 할지라도 그 결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 16:1에 보시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표준새번역)”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항상 그 앞에 D.V.를 붙이지요. Deo Volente,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약 4:15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표준새번역)

나아가 화산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깊이 돌아보며 참회할 때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곤 했습니다. 육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잣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 42:5-6, 표준새번역)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무지와 교만을 깊이 뉘우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니엘도 회개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썼습니다. (단 9:3)

우리가 기술 문명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고 그것을 우상화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화산재를 통해 우리가 만든 바벨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산의 분출을 통해 우리의 죄악에 대해 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아마 이러한 불 심판으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쾌락이 절정에 달했던 로마의 폼페이도 한순간 화산 폭발에 의해 순식간에 잣더미로 변했습니다. 최후의 심판도 불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현상을 염두에 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회개하라고 재를 뒤집어 씨우시는 구만·

독일의 복음적인 기독교 잡지인 Idea Spectrum 을 보니 당시 한참 이슈가 되었던 가톨릭 성직자들의 미성년자 추행사건을 언급하면서 두 사제가 대화를 나누는 만평이 기재되었습니다. 한 사제가 아이슬란드의 화산재 기사를 보도한 신문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날을 우리는 ,성회 수요일(Ash Wednesday)‘이라고 부릅니다. 참회하기 위해 거룩한 재를 뿐린다는 의미이지요. ,재‘를 머리에 뿐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한 줌의 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우리의 본래적 모습을 기억하며 더욱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화산재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 61:3에서 이것을 이렇게 노래로 예언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공의의 나무, 주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 Ökumenischer Umweltgottesdienst auf Gut Leidenhausen, 1. Mai 2002<sup>1</sup>

Unsere Hilfe kommt vom Namen Gottes, der die Welt erschaffen hat.

Ich begrüße Sie im Namen Gottes zum heutigen Ökumenischen Umweltgottesdienst. Laßt uns den Gottesdienst anfangen mit einem stillen Gebet.

**Eröffnungsgebet:** Ich danke Dir, himmlischer Vater, der du allmächtig und herrlich bist, dass wir uns heute in diesem Paradies, das du uns gegeben hast, versammeln und zusammen Gottesdienst feiern können. Heiliger Vater, heiliger Geist und heiliger Sohn, seid Herr über diesem Gottesdienst. Ehre soll Dir gebühren und laß es für uns die Zeit der endlosen Gnade und des Dankes sein. Im Namen Jesu. Amen.

Laßt uns zusammen „O Gott, sei Gelobt“ singen.

### Dankgebet

**Lesung:** Psalm 19:1 bis 6.

Frau Kim, Eun Kyung und Herr Kim, Kyung Chun wird jetzt Gott einen Lobpreis darbringen.

Das Thema der heutigen Predigt ist : **Gottes Schöpfung bewahren**

#### 1. Einführung : Die Schöpfung ist gut (1. M 1:31)

1 M. 1:1 sagt, dass Gott am Anfang die Welt erschaffen hat. Das bedeutet, dass der Ursprung von allem auf dieser Welt Gott sei. Hieraus sehen wir die Allmacht und die absolute Herrschaft Gottes. Der Gott unserer Bibel ist der Herr über alles im wahrsten Sinne des Wortes. Er hat alles erschaffen und regiert auch heute in seiner Macht und Fügung. Außerdem sagt die Bibel, dass er uns Menschen nach seiner Gottes Abbild erschaffen hat.

Das ist das Weltbild der Christen. Dieses Weltbild betont, dass der Beginn aller Schöpfung bei dem absoluten Herrn Gott liegt und dass er diese Welt mit Worten erschaffen hat, und zwar weise und schön. Gott hat 6 Tage lang an der Welt gearbeitet und am Ende des jeden einzelnen Tages gesagt, dass sie schön sei. So erzählt es uns die Bibel. In 1 M. 1:31 sagt er, dass die Welt in der Zusammensetzung, wie sie war, schön in seinem Augen gewesen sei, nachdem er alles erschaffen hat. Auch Apostel Paulus sagt in 1.

---

<sup>1</sup> 본고는 2002년 5월 1일 독일 퀴른 근교의 굿 라이덴하우젠(Gut Leidenhausen)에서 열린 야외 환경예배(Umweltgottesdienst)에서 독일 성도들의 초청을 받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Timotheus 4:4 bis 5, dass alles gut ist, was Gott gemacht hat, und so gibt es nichts zu verwerfen, wenn man mit Dank empfängt.

Der Glauben an die Schöpfung macht uns ehrfürchtig in unserer Seele und erfüllt unseren Herzen mit Lobpreis für den Schöpfer. Lobpreisen Sie Den Herrn, den Schöpfer, in dieser Schönheit und Erfülltheit der Schöpfung?

## **2. Schöpfung als Offenbarung (Ps. 19:1, Röm 1:20)**

Außerdem sagt die Bibel, dass die Schöpfung, die von Gott kommt, eine Offenbarung sei, die Gottes Ehre und Göttlichkeit uns zeigt. In Ps. 19:1 können wir lesen „Die Himmel erzählen die Ehre Gottes, und die Feste verkündigt seiner Hände Werk.“

Und auch in Römerbrief 1:20 sehen wir, „Denn Gottes unsichtbares Wesen, das ist seine ewige Kraft und Gottheit, wird seit der Schöpfung der Welt ersehen aus seinen Werken, wenn man sie wahrnimmt, sodass sie keine Entschuldigung haben.“

Das heißt, dass in der Welt Gottes Ehre, unendliche Macht und Göttlichkeit seiner Schöpfung unverkennlich offenbart wird.

Darüberhinaus sagt die Bibel, dass die Schöpfung die Aufrichtigkeit Gottes bezeugt. Dass Gott mit der Schöpfung ein Versprechen gemacht hat und dass er diese mit einer absoluten Aufrichtigkeit ausführt. In Jeremia 33: 20 bis 21 und 25 bis 26 lesen wir, dass Gott das Versprechen, das er Abraham, Isaak, Jakob und David gegeben hat, also das neue Versprechen, dass er einen Messias schicken wird, um sein Volk zu retten, halten wird, wie er das Versprechen an Tag und Nacht hält, so dass der Tagesablauf nach einem bestimmten Plan abläuft. Dass wir wissen, dass morgens die Sonne wieder aufgehen wird, wenn wir uns nachts schlafen legen, basiert auf dieser Aufrichtigkeit Gottes.

Erkennen Sie Gottes Ehre und Macht, Göttlichkeit und Aufrichtigkeit, wenn Sie diese Welt betrachten?

## **3. Schöpfung als Antwort (Ps. 33: 9)**

Als drittes sollte man beachten, dass diese Welt als Antwort auf Gottes Wort existiert. Gott sagte, es sei Licht und es war Licht. Nachdem Gott gesprochen hatte, geschah es sofort. Auch wir Menschen wurden erschaffen nach Gottes Abbild. Was bedeutet das? Das bedeutet, dass wir Menschen im Gegensatz zu den anderen Wesen, Gott ähnlich sind. Alle anderen Wesen außer den Menschen antworten auf Gottes Wort passiv. Aber Menschen antworten aktiv. Das ist der grundlegende Unterschied der Menschen zu den anderen Lebewesen. Ich bin der Meinung, dass die Menschenrechte und Unantastbarkeit am besten zu

verstehen ist, wenn man an das Abbild Gottes in uns Menschen denkt. Denn die Grundlage der Menschen ähnelt dem Gottes und so ist das Menschenrecht und der Wert eines Menschen etwas Heiliges.

Warum dann hat Gott uns Menschen nach seinem Abbild erschaffen? Das erkennt man an den Versen im Genesis 1: 26 bis 28. Also von Gott gesegnet zu werden und die Erde zu erfüllen und als Vertreter Gottes die Welt beherrschen und die Welt erobern.

Man pflegt dazu auch zu sagen „Kulturmandat“. Es ist unsere Aufgabe die Kultur zu formen. Ich denke, dass darüberhinaus in diesem Gebot ein geschichtlicher Sinn dahintersteckt. Denn die Geschichte der Menschheit besteht aus keinem geringeren Grund als dem, auf welche Weise die Menschen auf Gottes Worte reagieren oder eine Antwort geben. Definiert man die Kultur grob als die Gesamtheit der menschlischen Aktivitäten durch die Menschheitsgeschichte hindurch, so ist die Kultur der Menschen im Allgemeinen die Geschichte selbst und das Ergebnis der Antwort auf Gottes Kulturmandat. Daher ähnelt das Wesen der Menschen Gott und sie sind das Subjekt der Geschichte und Kultur, welches alle Lebewesen beherrscht.

Man kann daher auch von einem „Homo Respondens“, einem „antwortenden Menschen“ sprechen. Aus der Sichtweise unseres Schöpfers ist die Existenz der Menschen und all ihr Tun eine Antwort auf das Mandat, das Gott uns auferlegt hat. Welche Antworten geben Sie in diesem Moment Gott, ihrem Schöpfer? Unser ganzes Leben ist eine Antwort, die wir Gott geben, und wir müssen die Verantwortung für unser Leben tragen. Genau das ist unsere Verantwortlichkeit.

#### **4. Unsere Aufgabe auf der Erde: Nachhaltig entwickeln und bewahren (1. Mose 2,15)**

Der Mensch wurde als etwas Besonderes, nach Gottes Abbild, geschaffen. Er ist eine geschichtliche und kulturelle Existenz und trägt Verantwortung. Die Welt, die Gott geschaffen hat ist also keine passive, sondern eine aktive Welt. Sie steht nicht still, sie bewegt sich sehr vielfältig. In 1 M. 1, sehen wir, dass Adam und Eva im Garten Eden lebten, aber in der Offenbarung wird gesagt, dass wir die heilige Stadt, das neue Jerusalem, von Gott aus dem Himmel herabkommend, bereitet wie eine geschmückte Braut für ihren Mann, sehen werden. Aus dem Garten ist eine Stadt geworden. Diese Veränderung war nur möglich durch die Auswirkungen der Menschen über eine lange Zeit hinweg. Daher kann man den Prozess der Veränderung als die Geschichte der Menschheit und Kulturgeschichte betrachten. Auf geistiger Ebene kann man solches auch als Geschichte der Errettung verstehen. Denn die Geschichte der Menschheit bleibt nie still stehen und die Ereignisse wiederholen sich auch nicht andauernd, sondern die Geschichte schreitet in eine bestimmte Richtung weiter fort.

Genau darin liegt unsere Verantwortung, unsere Aufgabe. Nachdem Gott den Garten Eden geschaffen hatte, gab er Adam und Eva die Aufgabe, ihn zu beherrschen und zu bewachen. D.h. wir sollen die wunderbare

Welt, die Gott uns zum Geschenk gemacht hat, nach seinem Willen erschließen und kultivieren, gleichzeitig aber der Umwelt nicht schaden und durch ihre Erhaltung die Vollkommenheit von Gottes Schöpfung offenbaren und auf diese Weise Gott Ehre erweisen. Weil Gott in die Welt eine Ordnung nach seinen Regeln hineingebracht hat, so müssen auch wir, die in eben dieser Welt leben, Gott und unseren Nächsten wie uns selbst lieben und diese Welt rechtschaffend regieren und bewahren.

Unser Schöpfer Gott, der die ganze Welt so wunderschön geschaffen hat, wird in der Zukunft durch die Erschaffung des schönsten neuen Himmels und der Erde seinen Heilsplan vervollkommen. Aber wir können von der erstaunlichen Veränderung schon vorab in unserem jetzigen Leben kosten, wenn wir an Jesus als unseren Herrn und Christus glauben und ein beständiges vom heiligen Geist und von Gottes Worten erfülltes Leben führen. Demzufolge ist das Reich Gottes auch jetzt sehr dynamisch und wächst unscheinbar heran. Der heilige Geist bewirkt auch jetzt durch das Wort Gottes, dass jeder einzelner Gläubiger dem Herrn ähnelt und zu Gottes heiligem Volk gehört. Also ist diese von Gott erschaffene Welt sehr aktiv und letztenendes läuft es auf die vervollkommnung des Reich Gottes hinaus.

Liebe Gemeinde, die geschaffene Welt ist wunderschön. Die Schöpfung der Welt ist eine Offenbarung von Gottes Macht und Weisheit. Sie ist die Antwort auf das Wort Gottes. Daher liegt unsere Verantwortung bei der Entwicklung und Erhaltung dieser Welt. Zum Schluss wollen wir aus dem Römerbrief 11,36 lesen. „Denn von ihm und durch ihn und zu ihm sind alle Dinge. Ihm sei Ehre in Ewigkeit! Amen.“

So lasst uns gemeinsam das Lied **Du großer Gott** singen.

Nun wollen wir die Fürbitten vorbringen. Ich bitte sie, nachdem ich sie vorgetragen habe die Antwort darauf zu sigen.

Und nun singen wir alle das Lied **Dir jubelt laut der Lobgesang**.

Lasst uns das **Vater Unser** beten.

**Segen:** Der HERR segne dich und behue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und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